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曹丕와 曹植의 擬婦詩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王 珊 珊

2019 年 6 月

曹丕와 曹植의 擬婦詩研究

指導教授 趙成植

王珊珊

이 論文을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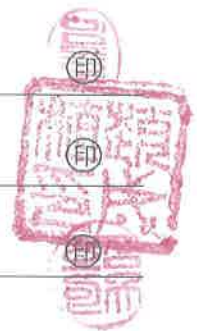
2019 年 6 月

王珊珊의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임동훈

委員 조성식

委員 상기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9 年 6 月



A study on impacting women's poems of
Cao Pi and Cao Zhi

SHANSHAN WANG
(Supervised by professor Sheongshik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iterature

2019. 0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heongshik Cho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2019.06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록

초록.....	1
제1장 서론.....	3
1.1 연구배경.....	3
1.2 선행연구 성과.....	6
1.2 연구 목적과 방법.....	9
제2장 曹조의 생平和 擬婦詩에 대한 연구.....	13
2.1 曹조의 생평.....	13
2.2 曹조의 擬婦詩에 대한 연구.....	15
제 3장 曹植의 생平和 擬婦詩에 대한 연구.....	24
3.1 曹植의 생평	24
3.2 曹植의 擬婦詩에 대한 연구.....	26
제4 장 二曹의 擬婦詩에 대한 비교 연구.....	37
4.1 二曹의 擬婦詩에 대한 상사점.....	37
4.2 二曹의 擬婦詩에 대한 상이점	49
제5장 결론.....	54
참고문헌	57
中文摘要.....	59

초록

역대의 문학사가(文學史家)들은 위진(魏晉)시기의 문학을 두고 “문학의 자각(自覺)시대”라고 부른다. 이는 위진(魏晉) 문학이 맹아의 시기로 발전하는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부터 문학은 보다 개성적이며 작가의 독특한 품격과 인격이 충분히 표현되기 시작하던 단계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건안(建安)문학은 다채로운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 이후의 위진 시기와 문학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반적으로 건안문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선 건안문학에서 제창한 “三曹” 즉 曹操, 曹丕, 曹植을 떠올리게 된다. 그들의 문학적 성과는 건안문학의 번영과 중국 문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의 문학 연구자들은 삼조의 연구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삼조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건안문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曹丕와 曹植은 동일한 시대에 태어났고 동일한 가정, 동일한 부모아래서 자랐으나 인생의 경력의 차이로 문학상의 성취도 각기 다르다. 과거에는 주로 曹植과 曹植의 시부(詩賦)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대체로 曹植의 시부에 대해 학자들은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曹丕와 曹植의 시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게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학자들은 대체로 曹丕 보다 曹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경》과 《초사》이래로 여성을 제재로 하는 작품들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난다. <관저(關雎)>에서 일컫는 요조숙녀거나 <망(氓)>에서 결별을 당한 여성, 또는 <천문(天問)>, <구가(九歌)>에서의 여황여영(娥皇女英)과 湘夫人은 모두 요조하고 예쁜 미모나 강인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양한(兩漢) 시기를 거치면서 董仲舒의 영향으로 인해 유가독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사회의 여성관은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날로 보수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여성에 대한 구속이 날로 다양해지며 여성들의 생존 공간 또한 극도로 압박을 받는다. 이 시기

에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은 점점 적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동한말년에 이르러서야 개선된다. 《고시십구수》에서 절반이상의 시가는 모두 여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曹丕와 曹植을 중심으로 하는 업하(鄴下) 문인집단도 적지 않은 여성 제재 작품을 창작하였다. 필자는 二曹의 시가 창작에 대한 특정을 분석한다. 중요한 것은 二曹의 擬婦詩를 분석하고 二曹의 擬婦詩의 여성형상과 여성인식의 상사점과 상이점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서 二曹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키워드: 曹丕, 曹植, 擬婦詩, 여성형상, 여성인식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曹조와 曹植은 건안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동한 말기의 천하대란과 전쟁으로 고통을 받던 하층민들의 양상을 묘사하고 건안 시기에 대업을 일으키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들의 시부와 산문 내용이 풍부하여 군대 생활을 주제로 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일부 귀공자와 문인들이 오락하는 모습을 반영한 작품도 있고, 여성들을 제재로 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그 밖에 曹조는 또한 《전론(典論)》이라는 책을 창작한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 문예 이론 저작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고대 문예 이론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술적 품격에 있어 양자는 모두 선진 이래 《시경》의 사실주의적 수법을 따르고 있으며, 《초사》의 낭만적인 정서를 계승하기도 하였다¹⁾.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은 건안 문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당시 문학사상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작가 魯迅은 “건안은 문학의 자각 시대이다.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문학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²⁾고 말하였다. 曹조와 曹植은 업하(鄴下) 문인집단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건안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三曹” 집단의 일원인 曹조는 부친인 曹操의 위업을 이어받아 제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성장하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골육상잔을 고난을 겪게 된다. 민중들은 대체로 정의에 대한 갈망과 영웅에 대한 숭배, 약자에 대한 동정심 등의 이유로 曹操와 曹植에 대해서는 찬양을 아끼지 않지만 曹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비판을 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문학을 자각하던 건안 시대에 曹조는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³⁾.

1) 王曉慧：〈曹丕曹植比較研究〉，內蒙古大學，2008年5月

2) 魯迅：《魯迅全集》，人民文學出版社1981年版，第三卷，501頁。

위진 남북조 문학의 연구에서 曹丕에 대한 연구는 다른 작가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이래 70년대 말까지 曹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자들이 曹操와 曹植에 의해 가려진 曹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曹丕의 시문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들이 발표되고, 그의 역사적인 지위와 《전론·논문(典論·論文)》이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과 더불어 사람들은 점점 曹丕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현재 학술계에서 曹丕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曹丕 산문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주로 산문의 체재와 예술적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다. 曹丕의 산문에는 정령(政令)문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曹丕는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여서 수많은 산문을 남겼다. 그와 동시에 曹丕는 한 나라의 제왕으로서 독특한 정치적 신분은 당시의 많은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의 영향으로 건안시기 많은 문인들이 서정시를 창작하였다.

둘째는 曹丕의 문학기론에 대한 연구이다. 曹丕는 《전론(典論)》이라는 책을 창작했는데, 중국에서 최초문예 이론과 비평저작이라 할 수 있다. 《전론(典論)》은 총 20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0편만이 현존하고 있다. 《전론·논문(典論·論文)》에서 曹丕는 “문은 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관점을 제기하며 “소위 문장이라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위대 사업 썩지 않은 성대한 일이다(蓋文章, 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고 하면서 문학 자체의 존재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문학사에 있어서 문학 자각의 시작을 알린 단서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세의 문학의 독립적인 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曹植은 건안 시기의 뛰어난 인물로 시부 방면에서 높은 성취를 거두었다. 그는 위진 이래 세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曹植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고대 문학연구의 일환으로 언급되었었다. 曹植에 대한 연구 성과도 曹丕에 대해 훨씬 다양함은 사실이다. 曹植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주로 그의 시부산문과 문학사상에 관련된 것이다. 그는 선진의 《시경》 《이소》의 우

3) 韋運韜, 〈魏文帝曹丕研究〉, 陝西師範大學, 2013年5月

수한 문학 전통을 이어받았다. 또한 양한시기 사부(辭賦) 민가의 영향을 받아 그의 시가는 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했다. 이는 육조의 수당문학 발전에 초석을 깔았다고 볼 수 있다. 건국한 이후 曹植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전통적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새로운 연구영역과 과제가 끊임없이 발굴되었다 (傳統的問題有了突破性的拓展, 新的領域和新的課題被不斷的發現開掘)”⁴⁾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연구 성과는 대체로 문본교정, 작가의 작품 연구, 자료 편집과 저작 및 논문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의 교정 주석은 조유문(趙幼文)선생님의 《조식집교주(曹植集校注)》⁵⁾와 장커리(張可里)선생님의 《삼조연보(三曹年譜)》⁶⁾를 따르도록 하겠다. 그중에서 조유문(趙幼文)선생님은 曹植의 작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주석과 연구를 하였다. 그는 편년체 방식으로 건안, 황초(黃初)와 태화(太和) 세 개의 시기로 나뉘서 曹植의 작품에 대해 정리와 교정을 하였다. 그는 대체로 고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후세의 학자들이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시경》과 《초사》이래로 여성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난다. <관저(關雎)>에서 일컫는 요조숙녀거나 <망(氓)>에서 결별을 당한 여성, 또는 <천문(天問)>, <구가(九歌)>에서의 여황여영(娥皇女英⁷⁾)과 湘夫人은 모두 요조하고 예쁜 미모나 강인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양한 시기를 거치면서 동중서의 영향으로 인해 유가독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사회의 여성관은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날로 보수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여성에 대한 구속이 날로 다양해지며 여성들의 생존 공간 또한 극도로 압박을 받는다. 이 시기에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은 점점 적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동한 말년에 이르러서야 개선된다.

《고시십구수》에서 절반 이상의 시가는 모두 여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曹조와 曹植가 중심으로 하는 업하(鄴下)문인 집단도 적지 않은 여성 제재 작품을 창작하였다. 현대에 문학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시가, 소설, 희극, 극본창작, 서정과 기술 산문 등이 있다. 여기에 응용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

4) 孫明君：〈建國以來曹植研究綜述〉，許昌師專學報(社會科學報)，1996年，第41期

5)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版。

6) 張可禮：《三曹年譜》，濟南：齊魯書社，1993年版

7) 娥皇女英：황제 요의 두 딸

나 선진의 양한 시기에 문학과 응용문은 분리되지 않았다. 시부와 상서와 같은 것들도 모두 문학으로 통칭되었다. 건안문학에서 銘、誄、詩、賦는 韻文, 奏、議、書, 는 각체와 같이 운문이 아닌 것은 모두 산문으로 치부되었다. 그 밖에 사료에서 曹丕와 曹植의 생활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도 모두 비교분석의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1.2 선행연구 성과

曹丕의 대표작 〈연가행 (燕歌行)〉 두 편에서는 절언시라는 형식을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드러난 진지한 감정과 섬세한 묘사는 많은 독자를 매료시켜 후세의 평가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曹丕의 여성 제재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연구들은 여성 시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孟慶陽은 〈試論曹丕詩賦中的女性作品〉⁸⁾에서 曹丕은 시부에서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사부(思婦), 버림받은 여성(棄婦), 과부(寡婦) 세 가지 여성형상에 대해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추호행(秋胡行)〉과 〈선재행(善哉行)〉은 남녀의 상을 그린 작품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그렸기에 이러한 작품에서 형상된 여성은 모두 “미모와 재주를 겸비”한 여성들이다. 산시 사범대학교의 韋運韜의 박사학위논문 〈魏文帝曹丕研究〉⁹⁾에서는 曹丕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문학과 정치생활, 시가, 부와 산문에 대해 비교적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시가와 산문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 제재의 작품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시가작품에서 남녀사랑을 묘사한 부분과 《內誠》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금지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曹丕의 여성 제재 작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연구는 비교적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8) 孟慶陽: 〈試論曹丕詩賦中的女性作品〉, 牡丹江教育學院學報, 2006-03-16

9) 韋運韜, 〈魏文帝曹丕研究〉, 陝西師範大學, 2013년5월

대체로 여성형상의 차원에서 출발하거나 曹丕 문학 사상의 일부로 간주하여 연구하였다. 이로 인해 曹丕의 여성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부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보다 체계적으로 曹丕의 시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여성형상의 방면에 숨겨진 曹丕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는 것은 그의 문학사상을 연구한 중요한 입각점이라 할 수 있다.

曹植의 시적 성취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오언시(五言詩)에 집중되어 있다. 曹植의 오언시 수량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도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 그는 시가는 반드시 “간략하면서도 사실적이어야 하며(要約而寫眞)”, “감정을 담아 창작해야 함(爲情而造文)”¹⁰⁾을 강조하고 있었다. 시가 외에도 曹植은 대량의 사부를 남겼다. <曹植賦略論>이라는 책에서 黃季畊 선생님은 다른 것 같이 曹植의 작품에 대해 평가하였다. “曹植은 그의 사부에서 강개 분방한 정서를 토로하면서도 사물의 내적 함의를 빌려서 자신의 사상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도가적 사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¹¹⁾

미학적인 차원에서 曹植의 시가 예술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曹植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시켰다. 虞德懋 선생님의 <曹植詩歌藝術影響摭論>은 미학적 차원에서 曹植 시가에 대한 비교적 초기의 평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문장에서 말하기를 “그의 시는 유가의 품격을 지니면서도 구속에 얽매이지 않은 야생적인 미를 갖추고 있기도 한다. 이는 모두 선진에서 중당(中唐)에 이르기까지의 독특한 장려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²⁾”고 하였다. 그는 비록 曹植의 시가의 “장려한 미(壯麗美)”에 대해 승인한 바 있지만 그때 가지만 해도 이러한 주장을 한 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그로부터 학자들에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업적을 축적하였는데, 예를 들면 張晶의 <論曹植詩歌的抒情性>이라는 문장에서 말하기를 “한위 악부

10) 朱碧菲：〈論曹丕和曹植的女性觀〉，中國石油大學，2016年4月

11) 黃季畊：〈曹植賦略論〉，安徽教育學院學報，1994年，第3期。：“曹植在他的辭賦中，既抒發了慷慨激越的情怀，也借物寓意，表達出他的思想情志。在后期，還深深表露出他的淡泊、超然的道家思想。”

12) 虞德懋：〈曹植詩歌藝術影響摭論〉，揚州師院學報，1989年第5期。：“他（曹植）的詩是側重的是儒家嚴正、弘毅之美，同時也間雜庄騷的恣肆、幽逸之美。均屬先秦到中唐所特有的壯美。”

와 위진 남북조의 시가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건안 시기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던 중요한 시점이었다. 曹植의 악부시(樂府詩)는 악부 변이의 추세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曹植은 한악부 민가와 문인들의 고대 시가의 전통을 융합하여 새로운 특징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그의 시가는 강렬한 행정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행정주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발현하게 되었다. 曹植의 악부시(樂府詩)는 가사와 품격이 뛰어났는데 이는 중고(中古)시가의 심미적 경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¹³⁾ 裴登峰은 선후로〈曹植詩歌의陰柔之美〉¹⁴⁾와〈曹植詩歌의陽剛之美〉¹⁵⁾,〈曹植詩歌意境美探析〉¹⁶⁾등의 문장을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각기 曹植 시가의 온유함, 남성미와 이러한 두 가지의 통합된 양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曹植의 여성 제재의 작품에서 일부 학자는 曹植이 여성을 제재로 한 시가작품은 대체로 인생의 후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曹植의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그 연원이나 전승에 관련하여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歐陽竹은 〈論前代文學對曹植女性題材作品的影響〉¹⁷⁾이라는 글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논술하였다. 즉 첫째는 《시경》이 曹植의 여성 제재 작품에 영향을 주었고, 둘째는 《초사》가 曹植의 여성 제재 작품에 영향을 주었으며 셋째는 한악부(漢樂府) 민요 《고시 십구 수》은 曹植의 여성 제재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張蕾는 〈婦女題材詩作鑒賞異說〉이라는 글에서 曹植의 작품에 창작된 여성들은 모두 “우울한 감정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처량한 색채를 띠고 있다. 曹植은 버림받은 여성이나 원망하는 여성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 자신의 불행한 정치적 운명을 투영한 것이다. 시인의 인격도 우울하고, 미래에 대해 암담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는 여성을 통해 자신의 비애를 표출하였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여성의 불행한 삶과 융합하였다”고 하였다”¹⁸⁾. 湯力偉는 〈曹植女性題材作品前后期比較〉¹⁹⁾라는 글에서 曹

13) 張晶：〈論曹植詩歌的抒情性〉，遼寧師大學報，1993年第5期：從漢魏樂府到魏晉南北朝歌詩，發生了深刻的變異，建安時期是變異的關捩。曹植樂府詩代表了樂府變異的趨勢，曹植繼承并融合了漢樂府民歌與文人古詩的傳統，形成了獨特的風貌，有強烈的行情性，使行情主體得以多方面的展現。曹植樂府詩‘詞采華茂’，代表了中古詩歌的審美傾向。

14) 裴登峰：〈曹植詩歌藝術影響摭論〉，西北師院學報，1991年第5期

15) 裴登峰：〈曹植詩歌的陽剛之美〉，西北師院學報，1991年第1期

16) 裴登峰：〈曹植詩歌意境美探析〉，西北師範大學學報，1993年第2期

17) 歐陽竹：〈論前代文學對曹植女性題材作品的影響〉，大眾文藝，2009年第2期

植의 여성 제재 작품들이 전기와 후기에 각각 차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어떤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를 지적하였다. 그 밖에 이를테면 裴登峰, 張音의 〈曹植作品中女性美的象征意義〉²⁰⁾라는 글에서도 여성 제재의 시가의 심층적인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王萍은 〈曹植女性題材作品中的女性視角之轉變〉라는 글에서 曹植의 여성 제재 작품은 모두 선명한 시각 변환의 과정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시각으로의 변모”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여성의 시각에서 창작되는데 즉 “여성 시각적 창작”이라는 것이다.²¹⁾

1.3 연구 목적과 방법

“擬婦詩” 어떤 의미인가?

위진 남북조 시기는 문학적으로 고도로 번영하고 발전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시가는 선진 양한 시가에서 개척한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하였다. 시가창작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시시의 시가 내용은 전대의 것보다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량의 擬古 작품이 출현하였다. 중국의 시가는 모두 “계승”과 “발전”의 전통을 따라 지속 되었다. 선대들의 문학적 전통과 성과를 이어받지 않고 계승하지 않았다면 중화민족의 휘황찬란한 문화는 발전할 수 없었다.

《시경》에서의 원시적 감정의 발현이라든가 위진 시기 문학의 자각과 창작은 모두 원고(遠古) 문학의 맹아라고 볼 수 있다. “擬古”는 바로 선인들을 학습하는 제일 전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蕭統은 《昭明文選》라는 책에서 “잡의(雜擬)”라는 목록을 만들었다. 盧士衡, 張孟陽, 陶潛, 謝靈運, 鮑明遠, 江文通 등의

18) 張蕾：〈婦女題材詩作鑒賞異說〉，河北師範大學學報，1992年第2期：都籠罩着一層憂郁的感傷、淒婉的色彩”，“曹植從思婦、弃婦、怨女的悲劇命運中觀照到了自己在政治風云中的不幸……詩人的个体人格也染上了愁苦、哀傷、欲言又止的情調”，“他通過女性的不幸表現自己的悲哀……他是將自己的身世之感融入女人的不幸之中。

19) 湯立偉：〈曹植女性題材作品后期之比較〉，湘潭師範學院學報，1998年第2期

20) 裴登峰、張音：〈曹植作品中女性美的象征意義〉，青海民族學院學報，1994年第4期

21) 王萍：〈曹植女性題材作品中的女性視角之轉變〉，讀書，2012年03期，中文核心期刊

의고 시작 육십여 편을 수록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위진 시기의 의고 현상은 매우 흥성했으며 가작의 수도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위진 이전의 시작에서의 여성형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들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때로는 분방하고 열정적이며 애증이 분명하다. 그들의 형상은 가식이 없고 순박하여 낭만적 감성을 갖고 있다. 《시경》에서 한홍 악부에는 시를 수집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문인들의 시와 향간의 가요들은 모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부녀들의 마음을 알리고 있다(婦女之聲)”, 〈上邪〉 “겨울날에 우레가 치고, 여름날에 눈이 내리다 (冬雷震震, 夏雨雪)”와 “죽어도 변치 않는다 (之死失靡它)” “먼지가 되도록 같이 할 수 없지만 서로 아끼는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沒命成灰土, 終不罷相怜)” 〈원가행(怨歌行)〉은 여성들이 버림을 받는 사연을 통해 “은정의 단절 (恩情中道絶)”에 대한 애원을 토로하고 있다. 〈董嬌嬌〉에서는 꽃을 따는 여성과 타오리의 대화를 빌려 “계속 바람이 불어 어찌 항상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終年會飄落, 安得久馨香)”, “예쁜 여성은 이 꽃보다도 못하니, 나이 들면 사정없이 버림을 받으니 (何時盛年去, 歡愛永相忘)”, 〈白頭吟〉 “듣기에 님 마음이 변했다고 (聞君有兩意)” 후 “특히 결별하고자 왔네 (故來相決絶)”라는 선택을 한다. 이는 모두 “思婦文本”라 볼 수 있는 대목들이다. 초기의 시가에서 여성들의 애모하는 감정은 자신의 신변상황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여성의 내적인 심리의 진실 된 묘사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가공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의 타고난 천성을 그렸을 뿐이다. 위진의 문인은 결혼한 부녀들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한탄하는 것을 일종의 전형적인 창작 소재로 삼았다. 여기에는 부녀들의 상황, 시가의 전통 정교(政教)이상과 시인 자체의 감정과 조우를 함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삼조(三曹)는 통치계급을 대표하는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문인들이 맴돌았으나 이는 오로지 문학적인 차원에서이다. 통치자들은 문인들에게 특별한 정치적 권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曹操는 문학을 좋아하지만 그는 여전히 “천하는 여전히 무력을 통해 지배해야 한다 (主天下而用武)”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록 문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전체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무력(武力)”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인들은 대체로 억압받는 존재이며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다.

하여 그들은 문학창작을 통해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했다. 장기적인 정신적 압력을 해소할 수 없었던 이들은 문학창작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한 것이다. 봉건사회에서의 부녀들의 지위는 문인들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많은 의고(擬古)작에서 작가들은 전인들의 부녀형상을 빌려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²²⁾. 曹丕와 曹植은 《시경》과 《초사》의 영향에 많은 여성 제재 시가를 창작하였다. 이러한 시가작품들은 여성 입장에서 자신의 내적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가를 “의부시(擬婦詩)”라고 부른다.

살펴보았듯이 曹丕와 曹植의 시가, 사부 산문과 문학 사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曹丕와 曹植의 擬婦詩에 대한 연구 아직 많지 않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일부 박사 논문과 학술지에서 二曹는 擬婦詩에 대해서 분석을 한 바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여성 제재의 시가 분석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曹丕와 曹植 두 작가의 擬婦詩에 대해서 모두 선명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曹丕과 曹植는 혈연적으로 갈라놓을 수 없으며 문학적 성향에 있어서도 일부 상사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曹丕와 曹植의 擬婦詩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양자의 문학사상과 개성의 차이에 대해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건안 시기의 여성 제재 문학창작이 발달했던 여유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가의 풍격은 대체로 한 사람의 정신적 면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二曹의 이런 擬婦詩에 관련한 자료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작품에서의 표출된 여성형상을 통해 양자의 개성과 문학사상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역사 자료 수집을 통해 현실에서의 二曹의 생평 및 그들의 인생경력 때문에 사가의 특정도 다르고 그들의 擬婦詩 심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양자의 상사점과 상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작품에 초점을 두고 二曹의 작품을 연구한다. 대체로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二曹의 擬婦詩에서 여성들의 형상을 각기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형상의 사회적 근원에 대해서 알아

22) 李靜、周曉琳：〈魏晉南北朝詩作中擬婦詩論〉, 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2012年第3期

본다.

2) 역사적인 시각을 동원하여 二曹의 擬婦詩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의 진보성에 대해 분석한다.

3) 시가에서의 여성형상을 통해 二曹은 여성 지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양자의 擬婦詩를 분석을 통해서 양자의 여성형상과 사상적인 차원에서의 상사점과 상이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2장 曹조의 생평과 擬婦詩에 대한 연구

2.1 曹조의 생평

曹조는 중국의 전형적인 문인 황제이다. 그는 문인 사대부의 신분으로 제왕의 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개국 황제로서 그의 문인적 성향은 매우 강하다. 이는 역대의 황제들에게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료에 의하면 소년 시기의 曹조는 문무에 통달하였으며, 여덟 살에 글짓기에 능하고, 활쏘기의 달인이었다고 한다. 고대의 경전을 통달하고 백가의 학설에 대해서도 훤했다고 한다. 사대부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문무를 익혀 제왕가에 보답해야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정치투쟁과 전쟁을 목격하며 자라야만 했었다. 그는 부친을 따라 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수많은 전쟁과 형의 죽음은 끊임없이 그에게 부친의 선택과 어린 자신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역대의 군왕들을 돌아볼 때, 군인 출신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다. 그러나 曹조의 출신이 특수하다는 것은 曹조는 양호한 교육을 받았고 진정한 사대부계층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의구심이 많은 성격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의 결과라고 한다면 섬세하고 조용한 것은 문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曹조는 24세에 오관의 부 정승의 위치에 올랐다. 그의 나이 서른에는 위국의 태자를 계승하였다. 삼 년 후에는 정승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제왕이 되었다. 이처럼 그의 정치적 생명이 한결 평탄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曹조가 출생한 해에는 황건적의난이 일어났던 말기였다. 그때 천하는 혼란했고 董卓가 권력을 찬탈하였다. 曹조의 부친 曹操는 대의를 위해 董卓를 살해했으나 그의 일가 운명은 천하대란의 상황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때 두 살이었던 曹조는 사대부 자식의 우월한 환경에 안주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비록 부친의 옆에서 자랐지만 냉혹하고 다혈질의 부

친의 성격 때문에 曹조는 충분한 부성애와 안정감을 받지 못했다. 曹조가 열 살 일 때, 그의 큰형인 曹昂은 부친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 曹昂은 자신의 말을 부친에게 양보했는데, 부친은 자신의 큰아들을 남겨두고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曹昂의 모친인 정부인은 曹操의 첫 아내인데 생육능력이 없으며 그녀가 曹昂을 키웠다. 반면에 曹操는 여색에 빠져 있었다. 張綉가 曹操를 배신했던 것도 曹操가 張綉의 작은 엄마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인은 曹操의 곁을 떠나게 된다. 그 이후에 曹操는 장유의 작은 엄마를 첩으로 맞이하게 된다. 형을 잃은 曹조는 자신의 부친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인정할 수 없었다. 무정한 曹操의 이러한 행위는 어린 曹조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남기면서 曹조 역시 음흉하고 의구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曹조가 魏太子(건안 22년, 즉 기원 217년)로 되기 전 曹操는 각종 전쟁을 통해 북방을 통일하였다. 건안 13년(기원 208년)에 曹操는 정승으로 취임하며 국정을 운영한다. 그 해에 曹操의 아들 曹冲이 어린 나이로 죽게 된다. 曹操는 매우 슬퍼했다. 文帝가 太祖를 위안하자 태조는 말하기를 “나의 이 불행은 어떻게 보면 조비의 행운이다(此我之不幸，而汝曹之幸也)”²³⁾라고 하였다. 그때 曹조는 건안 9년(기원 204년)부터 계속 鄴城을 지켰으며 부친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우울했고 이때마다 사냥을 통해 기분을 전환했다. 그때 갓 태어난 동생이 죽으면서 曹조는 애초에 슬퍼했으나 부친의 냉혹한 태도에 그의 심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같은 해에 曹操는 적벽대전에서 실패하게 된다. 그때 曹操는 “내 아들이 추천을 받게 된 이유는 내 자식의 재능이 탁월하여 그랬건 것이 아니다(溫辟臣子弟，選舉故不以實)”²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曹조는 보다 우울하게 된다. 부친이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자신을 추천한 조원이라는 사람의 직위도 면직했다. 건안 18년(기원 213년) 曹操는 위공(魏公)으로 책봉 받는다. 이때 후계자의 선정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曹操가 정승으로 위임되었을 때 이미 발생했어야 했던 문제였다. 후임자의 선정은 많은 문제를 생성시켰으며, 특히 曹조와 曹植의 모순은 전체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23) (晉) 陳壽撰, (宋) 裴松之注 《三國志·魏書·武文世王公傳》 中華書局 1982 年 7 月

24) 同上

여러 사건이 발생한 후 曹조는 드디어 태자로 임명받는다. 曹조가 태자로 위임받은 (건안 22년 즉 기원 217년)에서 그가 돌아간 (기원 226년) 기간 동안 조기의 가정은 각종 군벌의 상태에서 통일된 국가를 이루게 되며 전성기를 맞이한다. 曹조 역시 후계자 위임 때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권력의 중심에 자리잡는다. 가족 간의 소원, 혈육 간의 모순은 과거가 되었으나 曹조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가문의 변고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압력은 그로 하여금 차차 음울하고 괴벽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모하게 한다.

2.2 曹조의 擬婦詩에 대한 연구

曹조의 시가는 굉장히 풍부한 사상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형식의 변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한다. 시가에서 글자 수의 차이에 따라 사언, 오언, 육언, 칠언과 팔언으로 나누어진다. 逯欽立的 《先秦漢魏晉南北朝》와 魏宏燦의 《曹丕集校注》의 통계에 의하면 현존하는 曹조의 시는 44개에 달한다고 한다. 아래 도표²⁵⁾와 같다.

詩歌体式	四言詩	五言詩	六言詩	七言詩	雜言詩
詩歌數量	九首	二十二首	四首	二首	七首
例詩	《短歌行》 《秋胡行》	《孟津詩》 《夏日詩》	《令詩》 《黎陽作》	《燕歌行》	《臨高台》 《陌上桑》
詳解	其中七首是樂府詩	其中七首是樂府詩	其中一首是樂府詩	都是樂府詩	都是樂府詩

25) 韋運韜, 〈魏文帝曹丕研究〉, 陝西師範大學, 2013年5月.p.66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曹丕는 각종 시가의 형식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대체로 우수한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모든 문학작품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 무엇을 묘사하든, 궁극적으로는 모두 사회생활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문학작품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작품에서 반영한 내용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曹丕의 시가작품을 논할 경우 우리는 대체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다섯 가지는 각기 사회현실 반영, 궁중 오락 생활 묘사, 정치군사 원정의 생활, 인(仁)과 현(賢) 묘사, 남녀의 감정을 다룬 것이 있다²⁷⁾. 앞서 시가작품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볼 때, 曹丕의 작품은 사회 여러 영역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생활상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曹丕의 시가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과 포부도 담고 있다. 그의 시작품에서 우리는 민중에 대한 우려나 동점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그의 시작품이 현실주의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曹丕는 사랑의 문제를 보다 넓은 차원 즉 백성과 민중들의 정서와 결부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민중들의 내적 감정 세계를 묘사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가는 대체로 고향을 그리거나 남녀의 사랑을 언급한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해 曹丕의 내적인 세계가 매우 풍부하고 정열이 넘쳤음을 알게 한다. 예를 들면 〈善哉行·上山采薇〉라는 시편에서는 그는 고향을 떠난 유랑자의 심정을 매우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에서는 “강물은 흐르고 거기에 배 한 척이 있구나. 물결 따라 흘러가는 모습은 객지에서 떠도는 내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는구나 (湯湯川流，中有行舟。隨波轉薄，有似客游)”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슬픈 심정을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

曹丕의 시가작품은 당시의 사회적 큰 이유에 대해 언급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객지에 떠돌며 향수를 그린 작품이나 남녀의 사랑을 그린 작품들이 뛰어난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형의 시작품들이 유연하고

26) 韋運韜, 〈魏文帝曹丕研究〉, 陝西師範大學, 2013年5月.p.67

27) 韋運韜, 〈魏文帝曹丕研究〉, 陝西師範大學, 2013年5月.p.91

완연한 정서를 드러내면서 강렬한 서정성을 띠고 있다.

작가들은 전인들의 부녀형상을 빌려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한 시가는 擬婦詩이다. 현존하는 曹丕의 48개의 시에서 8개는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이다. 이러한 여성 제재로 한 시가는 다 擬婦詩이다. 예를 들면 〈秋胡行·朝与篇〉、〈善哉行·有美一人〉、〈清河作〉、〈于清河見挽船士新婚与妻别〉、〈寡婦詩〉、〈代劉勛妻王氏雜詩二首〉、〈燕歌行二首〉등 있다. 이들 시가작품에서 부각한 여성의 형상은 대체로 혼인 생활에서 불행을 겪는 여성이다. 曹丕는 이들에 대해 동정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제재의 작품은 양적으로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차원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擬婦詩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 사부(思婦), 버림받은 여성(棄婦), 과부(寡婦)와佳人(佳人) 네 개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曹丕는 이러한 시작품을 통해 여성들의 내적 심경과 정신적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1) 사부 (思婦)

사부는 즉 각종 이유로 남편이 외지에서 돌아오지 않아 장기적으로 혼자 살면서 밤낮으로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동한 말년부터 위진 남북조 시기까지 전쟁이 범람했으며 민중들의 전란이나 기황으로 인해 타향에서 유랑하게 고된 삶을 영위했다. 또는 과거 급제를 위해 고향을 떠나거나 또는 병역 때문에 가족을 등지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여인들은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당시에 많은 규원 원부가 생겨났다. 曹丕는 당시 전란으로 생겨난 사회적 현상과 사부(思婦)의 운명을 결합하였다. 그는 창작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묘사하고 그들의 삶의 고뇌를 토로함으로써 자신의 예술적 풍격을 형성했다. 曹丕의 사부시(思婦詩)는 〈燕歌行〉 두 편, 〈于清河見挽船士新婚与妻别〉등이 있다. 〈燕歌行〉은 曹丕의 “제일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섬세하고 완전한 필체로 외출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秋風蕭瑟天气凉,
 草木搖落露爲霜,
 群燕辭歸雁南翔。
 念君客游思斷腸,
 慊慊思歸戀故鄉
 何爲淹留寄他方?
 賤妾茕茕守空房,
 憂來思君不敢忘,
 不覺泪下沾衣裳。
 援琴鳴弦發清商,
 短歌微吟不能長。
 明月皎皎照我床,
 星漢西流夜未央。
 牽牛織女遙相望,
 爾獨何辜限河梁。 28)

가을바람은 소슬하고 날씨마저 서늘하니
 초목은 시들어 떨어지고 이슬은 서리가 되네.
 제비들은 작별 인사하고 고니는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타향에서 떠도는 당신 생각에 애간장 끊어지네요.
 돌아오고 싶은 공허한 생각에 고향 그리움 간절할 텐데
 그대는 어이하여 타향에 그리 오래 계시나요!
 이 몸은 의지할 곳 없어 홀로 빈방 지키며
 시름으로 다가오는 그대 생각 잠시도 잊을 수 없네요.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시고
 거문고 당겨 청상(淸商) 가락을 탑니다.
 짧은 노래 희망한 읊조림 길지도 못하구나
 밝은 달은 교교히 나의 침상 비추네요.
 은하수는 서편에 기우는데 밤은 아직 끝나지 않고
 견우와 직녀는 멀리서만 서로 바라보네.
 그대들 무슨 죄로 은하수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가?

송옥(宋玉) 의 〈구변(九辯)〉에 이르기를 “ 나무잎이 떨어지고 초목은 생기를 잃고 있으니 가을은 항상 슬프게만 느껴지구려 (悲哉秋之爲氣也! 蕭瑟兮, 草木搖落而變衰)” 이로부터 “비추(悲秋)”는 중국 고대 문학 특히 시가에서의 중요한 제재로 부상하였다. 曹丕는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여과없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다. “가을바람은 쓸쓸하고 초목은 서리에 덮히는 (秋風蕭瑟天气凉, 草木搖落露爲霜)”은 전편의 시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을밤의 배경으로 조용하고 고독하며 처량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쓸쓸한 가을바람에 초목들은 생기를 잃고 백로는 서리로 변하고 깊은 가을은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처량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기러기들은 남쪽으로 날아가나, 언제가는 돌아오지만 내 님은 객지로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사모하는 그리움이 날로 깊어지고 밝은 달빛은 그 여성의 텅 빈 침대에 비친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젊은 여성의 고뇌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냉정한 달빛과 끝없는 밤이 그리움 속의 여성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경물을 통해 시인의 마음을 보여

28)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

주는 것은 이른바 “개천고묘경(開千古妙境)”이라 할 수 있다.

〈于清河見挽船士新婚与妻別作〉에서는 갓 결혼한 부부가 결별하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与君結新婚，	님과 신혼인데
宿昔当別离。	하루 지나 이별을 하는구나
凉風動秋草，	가을 풀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蟋蟀鳴相隨。	매미들이 따라 운다.
冽冽寒蟬吟，	가을이 차갑고 매미들은 울어
蟬吟抱枯枝。	죽은 나뭇가지를 안고 있네
枯枝時飛揚，	마른 나뭇가지는 바람에 따라 오르고
身輕忽遷移。	몸도 날아 이동하네
不悲身遷移，	슬픔이 아니라 몸만 날아 이동하니
但惜歲月馳。	세월이 무상함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歲月无窮极，	세월은 끝이 없으니
會合安可知？	언제 만날지는 누가 알겠는가？
愿爲双黃鵠，	두 마리의 원앙이 되어
比翼戏清池。	연못에서 노닐고 싶구나. 29)

이 시에서는 여성의 인칭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달콤한 감정을 나누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곧 이별하게 된다. 아내의 우울한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로 인해 시에서 주변의 경물 역시 처량하고 쓸쓸하다. 시의 마지막에 아내는 자신이 세월의 무정과 언제 만날지 모르는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2) 버림받은 여성 (棄婦)

모계사회에서 여성들은 주도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모계사회의 해체와 부계

29)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第17頁

사회가 확립으로 여성들의 위치는 날로 떨어지게 된다. 그들이 사회적 주체였던 시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이른바 남성들의 사유물이거나 부속품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여성들이 버림받는 상황을 야기했다. 그래서 버림받는 여성의 형상은 중국의 고대 미술에서 종종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다. 버림받은 여성은 또한 고대 시가의 전통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曹조의 시는 〈代劉勛出妻王氏〉는 버림받은 왕씨 여성을 그리고 있다.

翩翩床前帳,	침대 앞에 걸린 비뚤어진 휘장
張以蔽光輝。	휘장은 빛을 가리려 하네
昔將爾同去,	예전 너랑 같이 떠나
今將爾同歸。	오늘 너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네
緘藏篋笥里,	너를 장롱에 숨기고
當復何時披。	언제 내가 다시 와서 열지 누가 알겠는가.

(其一)

誰言去婦薄,	누가 버림받은 여성은 정이 없다고 하였는가.
去婦情更重。	버림받은 여성은 정이 더 많네
千里不唾井,	천리 밖의 우물에서도 침을 뱉지 않는다
況乃昔所奉。	늘 전에 공양하던 님은 말할 것이 무엇이랴.
遠望未爲遙,	뒤를 돌아 얼마나 멀어졌는지
踟躕不得往。	확인하면서 머뭇거리는데 이미 헤어졌음은 어쩔 수가 없구려.

(其二)³⁰⁾

첫째는 “翩翩床前帳”을 통해 여성의 불행한 처지를 토로하고 있다.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시구는 여성이 비록 버림을 받았으나 아쉬운 마음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만큼 정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두 시구는 모두 버림받은 여성이 비통한 마음을 섬세한 시어를 통해 토로하고 있다.

30)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 p.18

3) 과부 (寡婦)

여성을 제재로 한 曹丕의 시가작품에는 남편이 죽은 후 홀로 삶을 영위하는 과부 여성을 그린 작품도 있다. 중국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애초에 취약계층이었다. 남편을 잃은 그들은 보다 더 비참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남편을 잃은 고통을 딛고 홀로 삶을 개척해야만 한다. 즉 “생”과 “죽음”의 압력은 항상 이들의 무거운 압력이 되어 그들을 짓눌렀다. 건안 17년에 “建安七子”의 가운데 한 명인 阮瑀가 불행하게도 일찍 생을 달리했다. 그로 인해 그의 아내는 홀로 불쌍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阮瑀의 친구 曹丕는 〈寡婦詩〉라는 작품을 창작하여 이를 묘사하였다.

霜露紛兮交下，	가을 이슬이 내려앉고
木叶落兮淒淒。	나뭇잎은 떨어지고 처량하니
候雁叫兮云中，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가느라 허공에서 짖어대고
歸燕翻兮徘徊。	제비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妾心感兮惆悵，	쓸쓸한 가을 풍경은 내 마음도 허전하게 하는구나
白日急兮西頽。	태양도 그런 내 모습이 처량해 급히 서쪽으로 기우는구나
守長夜兮思君，	걱정에 잠긴 나는 목을 내밀어 저 멀리 바라보니
魂一夕兮九乖。	밤이 어둡고 달과 별이 나오니
悵延佇兮仰視，	아무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星月隨兮天回。	혼자서 긴 밤을 지내며 내 님을 그리워한다.
徒引領兮入房，	하룻저녁에 아홉 번씩 놀라 일어난다.
竊自怜兮孤栖。	끝내 자신을 다독인다.
願從君兮終沒，	그 사람과 함께 백년해로 하네
愁何可兮久懷。 ³¹⁾	결정한 만큼 근심걱정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자구나

시인은 騷體의 형식, 즉 과부를 화자로 삼아 빌어 홀로 빈방을 지키는 슬픔과 애환을 여지없이 토로하고 있다. 이 시에서 曹丕는 과부의 인칭으로 비통에 잠긴 여성형상을 그리고 있다. 동한 시기 부녀들은 이미 어떠한 사회적 활동에도

31)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 2013年版.p.5

참여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모두 자립할 수 없었기에 남편을 잃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걱정하면서 또한 비통할 수밖에 없다. 시의 말미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과부가 남편을 따라 죽겠다는 시구가 나온다. 언어의 생동함은 독자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를 통해 작가는 과부에 대한 동정심을 토로했다.

4) 가인 (佳人)

여성을 제재로 한 曹丕의 시에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작품도 있다. 예를 들면 〈善哉行·有美一人〉、〈釣竿行〉、〈胡秋行〉(其二) 와 같은 것이다. 시에서 아름답고 순진하며 다채다능한 가인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면 〈善哉行·有美一人〉³²⁾는 시작품은 바로 탁월한 애정시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有美一人，婉如清揚。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가.
妍姿巧笑，和媚心腸。	자태가 예쁘고 웃음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知音識曲，善爲樂方。	음악에 능하고 악보도 알아본다.
哀弦微妙，清氣含芳。	처량한 악기 소리가 마치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풍긴다.
流鄭激楚，度宮中商。	연주가 정가초음처럼 유창하고 우렁차고 연주기술이 높네
感心動耳，綺麗難忘。	아름다운 음악을 나는 잊을 수가 없느니,
離鳥夕宿，在彼中洲。	고독한 새가 밤에 수중에 섬에 묵으니
延頸鼓翼，悲鳴相求。	목을 내밀어 날개를 움직이고 슬프게 울어서 동반을 찾네
眷然顧之，使我心愁。	절절하게 외로운 새가 보며 내 마음속에 우수 가득하니
嗟爾昔人，何以忘憂。	예전의 사람이 어떻게 우수를 잊을 수 있는 것을 모르니

시에서는 미인의 아름다운 자태와 “음악에 능한” 음악적 재능을 묘사하고 있다. 개편에서는 〈詩經·鄭風·野有蔓草〉의 원문을 인용하고 있다. 이 여인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여쁜 미소를 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32)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p.26

도 이러한 여성이 음악과 악기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여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소위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거의 완벽한 가인이었다. 이는 남성로 하여금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러나 미인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다. 소위 “眷然顧之，使我心愁”는 바로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고뇌를 그리고 있다.

〈釣竿行〉는 시에서 그 여자는 외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고상한 인격을 칭찬한다.

東越河濟水，	동쪽에 황하 제수에 건너가서
遙望大海涯。	바다를 멀리 바라보니
釣竿何珊瑚，	낚시 대를 바람에 따라 가네
魚尾何萋萋。	물고기 꼬리 물에 흔들여
行路之好者，	길에서 낚시를 좋아한 사람이
芳餌欲何爲。	왜 미기를 던지겠는가

남성 작가로서 曹조는 여성을 제재로 한 창작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여성의 인칭으로 여성의 그러한 절절한 마음을 각기 다른 차원에서 섬세하고 묘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법은 매우 정교하다고 할 수 있으며 거의 남성 작가의 창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껴진다. 이처럼 여성을 위한 자유식의 수법은 새로운 문학적 표현 방식을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표현수법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는 후대의 문학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제3장 曹植의 생平和 擬婦詩에 대한 연구

3.1 曹植의 생평

曹植은 자는 자건(子建)으로 曹操의 부인이 낳은 세 번째 아들이다. 曹丕와는 형제간이다. 曹植은 건안 시기에 제일 뛰어난 시인으로 불리고 있다. 鍾嶸은 그의 시에 대해 “강개가 높고, 단어가 화려하며, 정와 단아함을 갖춘 문체와 고금을 통틀어도 손에 꼽힐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다.”³³⁾고 높이 평가하였다. 曹植의 문학적 성과는 그의 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천부가 뛰어났는데 이는 《三國志·魏書·陳王傳》에 기록된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이 열살에 시를 읽고 사부를 수십 만 언 알 수 있다. 문장을 잘 다루고 …당시 업성의 신성 태조는 시 창작을 시켰는데, 曹植은 붓을 잡는 순간 이미 바로 완성하여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³⁴⁾고 한다.

曹植의 문학적 성과는 그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曹操는 건안 8년에 업성(鄴城)을 침탈한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자신의 가족을 업성(鄴城)으로 옮긴다. 이때 曹植은 열세 살이었다. 이로부터 건안 이십오년, 曹丕가 위왕이 될 때까지 曹植은 여기에서 십육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안락했던 세월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왕지, 유전 등 사람과 업하(鄴下) 문인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사냥을 즐기면서 귀족 생활을 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시를 읊으면서 흥을 분돋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이 창작했던 여러 시가 시부에서 반영되고 있다.

曹植의〈두계시(斗鷄詩)〉、〈명두편(名都篇)〉、〈공연시(公宴詩)〉、〈증정경시(贈丁庚詩)〉、〈(야전 황새행(夜田黃雀行))〉、〈(시봉태자좌시(侍太子坐詩))〉등 모두 당

33) 【梁】鍾嶸著, 曹旭集注, 詩品集注【M】。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4:P.97~98, “骨气奇高, 詞采華茂. 情兼雅怨, 体被文質. 集溢古今, 卓爾不群. 嗒乎陳思之于文章也, 譬人倫之有周孔, 鱗羽之有龍鳳, 音樂之有琴笙, 女工之有杼杼”。

34) 【晋】陳壽撰, 【宋】裴松之注, 三國志【M】。北京:中華書局, 2005:416, “年十歲余, 誦讀詩、論及詞賦數十萬言, 善屬文。……時鄴銅雀台新成, 太祖悉將諸子登台, 使各爲賦。植援筆立成, 可觀, 太祖甚異之”。

시의 사회적 생활을 반영한 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은 曹植이 사치를 즐기는 습성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曹植이 문학창작을 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사람과 시를 읊고 도에 대해서는 논하면서 자신의 시적 능력을 함양했던 것이다. 귀족적인 생활 자체로도 한 인간의 심미적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는 적극정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鍾嶸은 이를 두고 “시어가 화려하다 (詞采華茂)”고 평하였는데, 역대 曹植의 시를 평하는 사람들은 모두 曹植의 시에 드러난 이러한 특징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화려한 시풍은 그의 귀족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이 와중에 여러 번 부친을 따라 원정을 하며 전쟁을 체험한 적이 있다. 비록 역사적 기록에서는 그가 전쟁에 앞섰다는 언급은 없었다. 단기 건안 이십사년에 “조인이 관우로부터 포위를 당한 바 있는데, 태조는 曹植은 남중랑 장군으로 남인을 구하도록 하였다. 曹植은 술에 취해 명을 받지 못해 후회할 수 밖에 없었다.”³⁵⁾라는 기록이 있다. 그 다음해에 曹操는 병으로 세상을 뜬다. 曹植은 영원히 자신의 인생의 포부를 실현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는 그에게 있어 크나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정의 경력은 그의 공명심과 자신감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경력은 그의 일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후기에 와서도 그는 종종 원정 때의 경력을 회상하곤 하였다. 그밖에 이러한 경력은 그의 시야를 넓혔으며 그의 흥금을 벅차게 했다. 그의 시가는 보다 격정적이며 강개한 정서를 담고 있다. “매우 강개한 품위”를 담고 있다는 시풍은 바로 이러한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개국 이후, 그는 曹丕 부자의 각종 시기와 질투를 받아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의 시에는 강개한 품위와 울분에 넘치는 정서를 담고 있다.

曹植의 문학적 성과는 그의 성격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曹植은 매우 활발하고 개성이 강하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그는 술을 즐기며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부친 앞에 서슴없이 토로하는 사람이었다. 曹植과 曹丕의 경쟁에서 曹植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曹丕은 장자이나 재능은 曹植에 미치지

35) 【晋】陈壽撰，【宋】裴松之注，三國志【M】，北京：中華書局，2005：417.：“曹仁爲關羽所圍。太祖以植爲南中郎將行征虜將軍，欲遣救仁，呼有所救戒。植醉不能受命，于是悔而罷之”。

지 못했기 때문이다. 曹操는 한때 자신의 많은 자식 중에서 曹植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태자로 임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曹植의 거침없는 성격이 그가 경쟁에서 패하는 집적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曹植의 이러한 성격은 문학창작을 함에 있어서는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가 창작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왜냐 하면 시가는 서정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감정의 폭발력이 필요한 것이다. 郭沫若是 애초에 말하기를 극을 쓰는 사람은 미치광이이고 극을 보는 사람은 바보라고 했다. 시 창작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 종종 미친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볼 때 시가는 정열이 넘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曹植의 성격으로 볼 때 그의 이러한 호탕하고 기개가 넘치는 특징은 그의 여러 시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비교적 전형적인 것으로는〈백마편(白馬篇)〉,〈증정경시(贈丁庚詩)〉,〈야전황새행(野田黃雀行)〉등이 있다.

3.2 曹植의 擬婦詩에 대한 연구

曹植의 열정이 넘치며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성격은 문학 창작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가창작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왜냐 하면 시가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예술적 표현방식이기 때문이다. 郭沫若是 애초에 말하기를 극을 쓰는 사람은 미치광이이고 극을 보는 사람은 바보라고 했다. 시 창작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 종종 미친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볼 때 시가는 정열이 넘치는 사람이 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曹植의 성격으로 볼 때 그의 이러한 호탕하고 기개가 넘치는 특징은 그의 여러 시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존하는 曹植의 시가는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공업시(功業詩), 擬婦詩³⁶⁾, 유선시(游仙詩), 의론시(議論詩)가

36) 李靜、周曉琳:〈魏晉南北朝詩作中擬婦詩論〉, 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2012年第3期

있다. 37)

여성 제재 시가는 고대부터 있었던 시가형식이다. 이는 《시경》에서도 적지 않는 명작이 있다. 예를 들면 〈衛風·氓〉、〈邶風·谷風〉와 같은 것이다. 曹植의 여성 제재 시는 앞서 언급한 전통을 전승하면서 또한 《초사》의 수법을 첨가하기도 하면서 남녀의 사랑과 군신간의 의리를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다른 내적 심정을 살펴볼 수 있다. 사상적으로나 예술적 수법으로나 우리는 모두 曹植의 여성 제재 시가 상당한 예술적 성취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시작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존하는 曹植의 시가에서 擬婦詩는 십여 편이 있다. 이는 曹植의 시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이러한 작품을 해독함에 있어서는 시인의 창작심리와 결합해야 한다. 즉 표면적인 것과 심층적인 작가의식을 결합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황초 원년 曹조는 등기한 것을 분수령으로 曹植의 문학을 전후기로 나눈다면 우리는 여성 제재 작품의 변화를 통해 曹植 문학창작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전기에 曹植은 이미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한다. 오언시로는 〈棄婦篇〉、〈代劉勅妻王氏見出爲詩〉、〈妾薄命〉등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주로 《시경》과 한악부(漢樂府)의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어떠한 감정의 기탁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이 시기 曹植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작품의 내용도 변화가 생긴다. 이는 대체로 여성 제재로 한 작품에서 여성의 감정을 통해 자신이 박해받고 버림을 받는 상황을 비유했다. 즉 그는 여성의 감정을 자신의 정치적 실의와 결합했다. 曹植 여성 제재 시 창작 후기 시에서 버림받은 여성은 더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즉 자신이 표출할 수 없었던 마음속의 염원을 시작품을 통해 토로했다.

曹植은 후기 擬婦詩는 전기보다 훨씬 많다. 황초(黃初)와 태화 연간 曹植은 曹조와 曹睿 부자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의나, 고민, 희망을 여성 제재 시를 통해 토로하고 있다. 하여 그의 여성 제재 시 수량이 많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棄婦詩〉、〈七哀詩〉、〈浮萍

37) 李曙光 : <曹植詩歌研究>, 陝西師範大學, 2007年5月. p:8~27

篇〉와 〈种葛篇〉 등과 같은 것이다.

曹植의 擬婦詩는 내용에 따라서: 버림받은 여성 (棄婦), 사부 (思婦) 와佳人 (佳人) 으로 나뉜다.

1) 버림받은 여성 (棄婦)

曹植의 여성 제재 시에서 버림받은 여성의 유형은 많은 편이다. 〈棄婦篇〉은曹植이 창작 초기에 창작한 시편들이다. 이 시는 건안 십육 년 이전에 창작된 것인데 이때의曹植은曹操의 버림을 받지 않았었다. 다시 말해曹植이 의기양양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버림받은 여성이라고 비유하는 시들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향후에 그의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버림받은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철저했음을 알 수 있다. 황초 (黃初)、태화 (太和) 연간에曹植은曹丕과曹叡 부자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패배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여성 주제 시를 통해 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여성 제재 시는 점차 많이 발표됐다. 〈浮萍篇〉과 〈种葛篇〉은 그 중에서 두 편의 여성 제재 시라 할 수 있다.

曹植 전기의 〈棄婦篇〉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로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石榴植前庭,綠叶搖縹青。

정원에 석류나무 한 그루를 심으니, 정원에 초록색이 만연하구나.

丹華灼烈烈,瓏彩有光榮。

연한 붉은 꽃이 타오르는 불꽃마냥 눈부시게 뚜렷하다.

光榮晬流离,可以戏淑灵。

밝은 빛은 유리로 된 궁전을 방불케 하고 마침 한 신령이 들어오는 듯하다.

有鳥飛來集,扮翼以悲鳴。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여기로 날아와서 날개를 휘저으며 애절하게 운다.

悲鳴夫何爲,丹華實不成。

왜 슬프게 우냐고 물으니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않아서 운다고 한다.

扮心長嘆息,无子当歸宁。

나무를 부여잡고 한숨을 쉬며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처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有子月經天,无子若流星。

아들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달과 같이 환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저기 별똥처럼 쫓겨야만 달은 하늘과 끝까지 할 수 있으나 별똥은 스쳐 지나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天月相終始,流星沒无精。

빛도 없고 귀속도 없다.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힐 뿐이다

栖遲失所宜,下与瓦石并。

내 마음은 음울하기 그지없고, 밤에서 새벽까지 한숨만 쉬는구나.

憂懷從中來,嘆息通鷄鳴。

잠을 이룰 수 없어 정원에서 잤다 왔다

反側不能寐,逍遙于前庭。

枷櫛還入房,肅肅帷幕聲

방으로 들어가서 집안에 조용하기만 하고 휘장 소리만 나왔네

寒帷更攝帶,撫節彈鳴箏。

근심에 쌓여 쟁을 다루니 심사가 겹치고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니

慷慨有余音,要妙悲且清。

눈물이 쟁의 소리에 따라 내리고 내 고통스러운 마음이 전달하네

收泪長嘆息,何以負神灵,

눈물을 삼키고 한숨을 쉬면서 내가 신령에게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招搖待霜露,何必春夏成

계수나무는 서리가 내리는 가을에 열매를 맺지만 왜 이른 봄여름에 이렇게도 재촉하는지

晚獲爲良實,愿君且安寧。

조금 늦게 수확하면 필연코 더 많이 얻을 수 있음은 알면서도 부군을 축복하는 수밖에 없구나

一一〈棄婦篇〉³⁸⁾

시에서 “有子月經天, 无子若流星。天月相終結, 流星沒无精。”와 같은 네 구절은 자식이 있는 여성과 자식이 없는 여성의 처지가 천지와 땅의 차이라고 말하

38)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P.35

고 있다. 일부 학자는 曹植의 이 시를 두고 봉건적인 제도를 폭로하고 있다고 말한다. “칠출(七出)은 많은 여성들을 박해했다. 曹植은 시를 통해 봉건적 사회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曹植은 봉건 통치계급의 일원으로 하층 여성의 비애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그의 우국우민의 지향을 엿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한 편으로 우리는 曹植은 오로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봉건 여성을 동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버림받은 여성을 제재로 한 시를 알게 되면 우리는 曹植은 시를 통해 봉건 여성이 자식이 없거나 여러 원인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통해 자신이 군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운명에 비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는 曹植이 여성 제재로 한 시가작품을 통해 선대의 “향초미인 (香草美人)”과 “규원사부 (閨怨思婦)”의 제재를 계승하면서 작품의 여성의 외적 형상과 내적인 심리를 풍부히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작품에서도 “신첩의식 (臣妾意識)”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자신의 처지를 여성을 통해 표현한 것은 개척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⁴⁰⁾

예를 들면 〈浮萍篇〉⁴¹⁾에는 주인공도 버림받은 여성이다.

浮萍寄清水。	부평초는 맑은 물에 기생하며
隨風東西流。	바람 따라 사방으로 흘러 다닙니다.
結發辭嚴親。	쪽을 찢고 부모님과 작별한 뒤
來爲君子仇。	이리로 와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요
恪勤在朝夕。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부지런했는데
無端獲罪尤。	가담 없이 허물과 원망만 들었지요
在昔蒙恩惠。	그래도 옛날에는 은혜를 입어
和樂如瑟琴。	금슬처럼 화목하고 즐거웠건만
何意今摧頽。	어찌 지금처럼 꺾이리라 생각이나 했을까

39) 黃節, 《曹子建詩注》, 中華書局2008年北京第1版, P.10

40) 聂文郁, 《曹子建〈弃婦詩〉辨析》, 青海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84年02期

41) 趙幼文, 《曹植集校注》,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年.p.311

曠若商與參。	마치 상성과 삼성처럼 서로 멀어졌군요
茱萸自有芳。	수유가 스스로 향내를 피워도
不若桂與蘭。	계수나무나 난초만은 못하듯이
新人雖可愛。	새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無若故所歡。	옛 사람이 주는 기쁨만 못할 거예요
行云有返期。	그지나가는 구름도 돌아올 날이 있는데
君恩儻中還。	대의 사랑도 불쑥 중도에 돌아오겠지요
慊慊仰天嘆。	불만스럽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지만
愁心將何戀。	근심스런 마음은 장차 어디에 하소연할까요
日月不恒處。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르니
人生忽若寓。	인생이란 잠시 머무는 객사 같을 뿐
悲風來入懷。	슬픈 바람이 마음속으로 불어 다니
淚下如垂露。	눈물이 이슬처럼 흘러내리네요
發篋造裳衣。	상자를 들추어 옷을 지으려고
裁縫紈與素。	흰 깃과 고운 비단으로 마르고 꿰맨답니다

“새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옛 사람이 주는 기쁨만 못할 거예요(新人雖可愛，不若舊人歡。行云有返期，君恩儻中還)”⁴²⁾와 같은 구절이 있다. 이는 한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남편이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 불쌍한 여성이다. 글에서는 “신인의 웃음은 보이나, 오래된 삶의 울음은 보지 못하고 있다(只見新人笑，不見舊人哭)”는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이는 즉 曹植이 군주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하고 있으나 군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曹植은 군주의 신임을 받아 공훈을 세우고 싶어하는 절실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2) 사부 (思婦)

사부라 함은 즉 각종 이유로 남편이 외지에서 돌아오지 않아 장기적으로 혼자

42)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

살면서 밤낮으로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曹植의 여성 제재 시에서 〈칠애시(七哀詩)〉, 〈규정애정〉은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잡시雜詩〉등은 모두 思婦詩에 속한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七哀詩〉가 있다.

明月照高樓，	밝은 달은 높은 누각을 비추니.
流光正徘徊。	물결에 비친 달빛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듯.
上有愁思婦，	누각 위 수심에 찬 아낙은
悲嘆有余哀。	슬픈 탄식 속에 남겨진 또 다른 애처로움
借問嘆者誰？	탄식하는 자 누구냐 물었더니
言是宕子妻。	방랑자의 아내라네
君行逾十年，	님 떠나가신 지 십년이 넘도록
孤妾常獨栖。	외로운 이 몸 언제나 홀로 지냈지.
君若清路塵，	님은 깨끗한 길의 먼지요.
妾若濁水泥。	첩은 흐린물 속 진흙이랴오.
浮沉各異勢，	뜨고 가라앉는 신세 각기 다르니.
會合何時諧	어느 때나 같이 만나리오
愿爲西南風，	바라노니 서남풍 되어
長逝入君懷。	멀리 날아 님의 품에 들고 싶지만
君懷良不開，	님의 품은 참으로 열려있지 않으니.
賤妾當何依！ ⁴³⁾	제 몸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요

이 시에서는 경물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처량한 분위기가 시 전체를 감돌고 있다. “명월이 높은 건물을 비추고, 그 빛이 아른거리며 배회한다(明月照高樓，流光正徘徊)”는 “흥”의 수법을 통해 여주인공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명월이 높이 떠 있고, 사부는 건물에 기대어 먼 곳에 있는 자신의 부군을 그리고 있다. 달빛이 환할 때는 바로 사색에 잠기기 쉬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른거리는 달빛은 사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曹植이 창작한 “명월(明月)”, “고루(高樓)”, “사부(思婦)”의 조합은 후대의 시인들이 반복적으로 응용

43)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

하여 자신의 규원을 표출했다. 명월은 중국의 시가에서 상사를 촉발하는 단서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李白의 “擧頭望明月，低頭思故鄉 (머리를 들어 명월을 보고, 고개를 떨구어 고향을 그린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달밤과 달빛은 시인들이 끝없는 사색을 하며 자신이 그리는 사람과 일을 떠올리게 한다.

“愿爲西南風，長逝入君懷。君懷良不開，賤妾當何依？”에서 여성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지언정 남편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 이로부터 曹植의 우국충군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위해 되돌아오지 않는다. 曹植은 군주의 시기와 질투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曹植은 시에서 “비천한 첩(賤妾)”으로 자신이 국가와 군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으나 받아주지 못하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때 曹植은 객관적인 시각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일인칭 시각이라 할 수 있다.⁴⁴⁾

曹植의 〈雜詩·其三〉⁴⁵⁾에서 주인공도 한 사부이다.

西北有織婦，	서북쪽에 베 짜는 여자 있어.
綺縞何繽紛。	꽃무늬 비단 어찌나 화려한지.
明晨秉机杼，	이른 아침부터 베틀을 잡았건만.
日昃不成文。	날이 저물도록 무늬를 다 넣지 못했네.
太息終長夜，	한숨으로 지나간 밤 보내니.
悲嘯入靑云。	슬픈 소리 프른 구름 향해 퍼지네.
妾身守空閨，	이 몸도 독수공방하고
良人行從軍。	내 님은 종군하러 가셨네.
自期三年歸，	삼 년이면 돌아온다 기약한 이래.
今已歷九春。	지금 벌써 아홉 해 봄이 지났네
飛鳥繞樹翔，	나는 새는 나무를 휘 돌아 날아가.
嗷嗷鳴索群。	슬피 울며 낭군을 애타게 찾는다.
愿爲南流景，	남쪽으로 흐르는 빛이 되어.
馳光見我君	빛을 내달려 내 낭군 보고 싶어지네

44) 王鵬云〈曹植前后期弃婦詩賦比較研究〉，文學教育（上）2016.04

45)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

이 시는 “西北有織婦(서북쪽에 베 짜는 여자 있다)”는 고대의 시에서 자주 보이는 즉흥적인 수법이다. 그 뒤로는 “綺縞何繽紛 (꽃무늬 비단 어찌나 화려한지)”라는 말이 따른다. 이는 매일마다 천을 짜는 여성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천은 모두 무늬가 일정하지 않다. “明晨秉机杼, 日昃不成文(이른 아침부터 베틀을 잡았건만. 날이 저물도록 무늬를 다 넣지 못했네)” 그녀가 심적으로 군에 나간 남편을 그리고 있어 천을 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曹植은 과장된 수법을 통해 이 여성이 밤낮으로 한숨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한숨 소리는 구름을 찌른다고 한다. 이로써 그녀의 비통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3) 가인 (佳人)

사부시(思婦詩) 외에 曹植은 다른 부류의 시를 창작한 바 있다. 즉 나이가 왔으나 시집을 가지 못한 여성의 비원을 그린 작품이다. 예를 들면 <미인편美人篇>, <잡시雜詩>와 <남국유가인(南國有佳)>과 같은 것이다.

<南國有佳>에서는 말하기를

南國有佳人,	남국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容華若桃李。	용모는 아름다운 벚꽃 같다.
朝游江北岸,	이른 아침에 강변에 와서 놀고 있고
夕宿瀟湘址。	저녁에는 작은 섬에서 쉰다.
時俗薄朱顏,	아름다운 미모와 웃음은
誰爲發給齒?	누구를 향한 것일까
俯仰歲將暮,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榮耀難久恃。 ⁴⁶⁾	아름다운 용모 역시 영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시와 주제가 비슷한 것으로는 <美人篇>이 있다. <南國有佳人>가 숙련한

46)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

느낌을 주는 이유는 전 편의 시가 간결하고 세련되었으며 여덟 문장을 통해 가인의 용모, 행동에 대한 묘사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복잡한 심리적 서사도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깊다. 반면에 〈美人篇〉은 섬세한 묘사로서 손에서 머리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보여주고 있다. 지루함이 없이 반복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그밖에 “부드러운 가지는 어지러이 흔들거리고 떨어지는 잎새는 어찌 저히도 훌쩍 나는가(柔條紛冉冉, 落葉何翩翩!)” “비단 옷은 바람에 나부끼고 가벼운 옷자락은 바람에 따라 살랑거리네 (羅衣何飄飄, 輕裾隨風還)”와 같은 생동한 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아름다운 미모를 묘사하면서 “돌아보는 눈동자엔 광채가 감돌고 길게 내쉬는 숨결은 난초와도 같다(顧盼遺光彩, 長陳氣若蘭)”와 같은 묘사를 하고 있다.

〈美人篇〉에서는 말하기를

美女妖且閑,	미녀는 아름답고도 아정한데
采桑歧路間。	갈림 길 사이에서 뽕잎을 따네
柔條紛冉冉,	부드러운 가지는 어지러이 흔들거리고
落葉何翩翩。	떨어지는 잎새는 어찌 저히도 훌쩍 나는가
攘袖見素手,	걸은 소매에 하얀 손 드러나
皓腕約金環。	흰 팔엔 금팔찌를 끼었네
頭上金爵釵,	머리에는 금비녀 꽂고
腰佩翠琅玕。	허리에는 비취색 구슬을 차고 있네
明珠交玉體,	빛나는 구슬 옥 같은 몸에 두르니
珊瑚間木難。	그야말로 산호사이의 푸른 진주구나
羅衣何飄飄,	비단 옷은 바람에 나부끼고
輕裾隨風還。	가벼운 옷자락은 바람에 따라 살랑거리네.
顧盼遺光彩,	돌아보는 눈동자엔 광채가 감돌고
長嘯氣若蘭。	길게 내쉬는 숨결은 난초와도 같아서
行徒用息駕,	길손은 수레를 멈추고
休者以忘餐。	쉬는 자는 먹는 것조차 잊었네
借問女安居,	여인이 어디 사는가 물으니

乃在城南端。	바로 성 남단에 산다하네
靑樓臨大路，	푸른 칠의 누각은 큰길에 닿아 있고
高門結重關。	높은 문 겹겹이 닫혀있네
容華耀朝日，	꽃과 같은 얼굴 아침 햇살에 빛나니
誰不希令顏	누군들 그 고운 얼굴 바라지 않으리요
媒氏何所營	중매쟁이는 무엇을 하였기에
玉帛不時安。	폐백의 청혼이 제 때에 안착하지 못했는가
佳人慕高義，	가인은 높은 절의를 사모하고
求賢良獨難。	어진 배필을 찾는데 유독 까다롭구나
衆人徒傲嗽，	못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만
安知彼所觀。	그녀의 살피는 살피는 바를 어찌 알리요
盛年處房室，	한창 나이에 집에만 눌러 있으니
中夜起長嘆。 47)	한밤중에 일어나 길게 탄식하네

이 시의 서두에서는 여성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출신이 고귀하다는 것은 “청루 (靑樓)”라는 비유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曹植이 재능이 넘치며 신분이 뛰어난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예쁜 여성이지만 나이가 차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고 통치자를 인사제도를 비판하고 있지는 못하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독자들은 음미할 수 있다.

앞서 曹植의 擬婦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시집을 가지 못한 여성의 운명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통탄하고 있으며 사부의 형상을 통해 자신이 등용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성을 그린 작품은 그가 이유 없이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애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 제재 시는 대체적으로 온유한 예술적 풍격을 지니는 작가의 독특한 심미적 정취를 엿볼 수 있다.

47)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p.93 ..

제4장 二曹의 擬婦詩에 대한 비교 연구

4.1 二曹의 擬婦詩에 대한 상사점

1) 비슷한 유형의 여성형상

曹조과 曹植은 자신들의 여성 제재 작품에서 다양한 여성형상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은 일정한 부분은 작가 자신의 생활 체험을 통해 체현한 것이고 일부는 허구로 구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이 그린 사부(思婦)佳人(佳人)들과 같은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일부는 실제로 역사에 출현했던 인물들도 있다. 예를 들면 阮元瑜의 아내, 卞夫人, 鄭秀과 같은 사람들이다. 曹조와 曹植의 작품에서 형상화된 여성들은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 여성의 형상은 비참한 운명을 갖고 있는 불쌍한 여성들이다. 그들은 결혼생활에서 불행한 여성들이며, 대체로 사부(思婦), 버림받은 여성(棄婦), 과부(寡婦)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 밖에 二曹은 모두 《시경》과 《초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용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넘치는 여성을 그린 작품이 있다.

(1)사부 (思婦)

사부는 함은 즉 각종 이유로 남편이 외지에서 돌아오지 않아 장기적으로 혼자 살면서 밤낮으로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사부와 관련된 시가는 曹조의 시에서 제일 뛰어나고 가장 영향력을 갖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가는 〈燕歌行〉은 대표적이다. 〈燕歌行〉은 건안 시기 칠언시의 명작이며 曹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시는 모두 여성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창작한 시기는 曹조가 태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이다. 〈燕歌行〉 장르에 있어서 칠언시의 시작을 장르적으로 칠

언시의 선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 이별의 정을 섬세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하였다.

〈燕歌行·其一〉에서 曹丕는 여진의 시의 서두에서 처량한 가을 풍경을 통해 인물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사부의 인칭으로 남편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남편을 그리워하되 잊을 수 있게느냐 (憂來思君不敢忘)”라고 한다.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이 텅 빈 방에서 우울한 감정에 쌓여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자책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눈물을 흘린다. 그녀의 우울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고금을 꺼내어 연주한다. 그러나 마음속의 애상을 달랠 수 없어 그녀가 연주한 음악은 점차 걱정적인 것으로 변한다. 하여 이 여성은 견우직녀를 자신과 부군의 거리에 비유한다. 무슨 이유로 만날 수 없는 지에 대해 한탄한다. 曹丕는 여성의 인칭으로 이 여성이 부군에 대해 그리워하는 감정을 섬세하고 그리고 있다. 사부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다.

〈燕歌行·其二〉⁴⁸⁾의 여주인공도 사부이다.

別日何易會日難，	지는 것은 쉬우나 다시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山川悠遠路漫漫。	산은 높고 길은 험난하니.
郁陶思君未敢言，	당신이 그리워도 토로할 바가 없구나.
寄聲浮雲往不還。	구름에 내 소식을 전해주지만 구름도 보이지가 않는구나.
涕零兩面毀容顏，	매일 눈물로 얼굴을 씻으니 내 용모만 하루하루 늙어가니
誰能懷憂獨不嘆？	근심에 쌓여 한탄을 하니
展詩清歌聊自寬，	유사의 〈연가행〉을 부를 수밖에 없구나.
樂往哀來摧肺肝。	그러나 즐거움은 잠깐 슬픔만 길어지는 구나.
耿耿伏枕不能眠，	밤이 깊어 잠을 이루지 못하네.
披衣出戶步東西，	옷을 입고 정원에서 배회한다
仰看星月觀雲間。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니 별이 달을 감싸고 있는데,
飛鶴晨鳴聲可憐，	새벽안개 속에 비둘기가 슬프게 짙어대는 것은

48)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

留連顧懷不能存。 내 심중을 달래기라도 하는 것일까

이 시가에서 그 여자주인공은 남편과 천리를 두고 있어 이별은 쉬우나 만남은 어렵다. 차오르는 감정을 겨누지 못해 심리적인 상처는 생리적인 상초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직관적으로 사부의 고뇌를 그리고 있다.

曹조의 〈清河作〉 및 〈于清河見挽船士新婚与妻別作〉 두 편의 시는 동일한 시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곧 이별하게 되어 아쉬워하는 감정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 여성도 사부가 된다.

첫번째 〈清河作〉⁴⁹⁾의 전편은 아래와 같다:

方舟戏長水,	두 배가 가련히 물속에 놀고 있고
澹澹自浮沉。	물결에 배가 흔들거린다.
弦歌發中流,	배에서 노랫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悲響有余音。	애절한 악기 소리는 좀처럼 끊이질 않는다.
音聲入君懷,	노랫소리가 당신의 옆에 전해오니
淒愴傷人心。	슬픔에 잠긴 당신을 눈물만 흘린다.
心傷安所念?	당신이 슬피하며 누구를 생각하는가?
但愿恩情深。	은정이 영원히 깊기를 바라니
愿爲晨風鳥,	우리가 저 새가 되어서
双飛翔北林	나는 임과 같이 북쪽의 수림 속으로 같이 날아가구나

두 번째는 〈于清河見挽船士新婚与妻別作〉⁵⁰⁾에서는 갓 결혼한 부부가 결별하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与君結新婚,	넌과 신혼인데
宿昔当別离。	하루 지나 이별을 하는구나
凉風動秋草,	가을 풀은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고,
蟋蟀鳴相隨。	매미들이 따라 온다.

49)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p.17

50)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 p.17

冽冽寒蟬吟，	가을이 차갑고 매미들은 울어
蟬吟抱枯枝。	죽은 나뭇가지를 안고 있네
枯枝時飛揚，	마른 나뭇가지는 바람에 따라 오르고
身輕忽遷移。	몸도 날아 이동하네
不悲身遷移，	슬픔이 아니라 몸만 날아 이동하니
但惜歲月馳。	세월이 무상함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歲月無窮極，	세월은 끝이 없으니
會合安可知？	언제 만날지는 누가 알겠는가?
願爲雙黃鵠，	두 마리의 원앙이 되어
比翼戲清池。	연못에서 노닐고 싶구나. 51)

이 시에서는 여성의 인칭을 통해 여성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신혼의 부부는 달콤한 감정을 나누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곧 이별하게 된다. 아내의 우울한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로 인해 시에서 주변의 경물 역시 처량하고 쓸쓸하다. 시의 마지막에 아내는 자신이 세월의 무정과 언제 만날지 모르는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남편이 황고새마냥 연못에서 즐기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 남세의 사람은 수림 속의 새가 부러울 뿐이다. 적어도 그들은 이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曹植의 〈雜詩·其三〉에서 주인공은 한 사부이다. 그녀는 혼자 독방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군대에서 곧 돌아올 남편을 그리고 있다. 동한 말기에 전란이 빈번하여 많은 젊은 남성들이 처자식을 두고 전장에 나가야만 했었다. 그래서 집에는 종일 여성들의 애상만이 넘칠 뿐이었다. 曹植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상징적으로 하루를 일 년같이 사는 고뇌에 빠진 사부를 그렸다.

西北有織婦，	서북쪽에 베 짜는 여자 있어.
綺縞何繽紛。	꽃무늬 비단 어찌나 화려한지.
明晨秉机杼，	이른 아침부터 베틀을 잡았건만.
日昃不成文。	날이 저물도록 무늬를 다 넣지 못했네.
太息終長夜，	한숨으로 지나긴 밤 보내니.

51)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第17頁

悲嘯入青雲。	슬픈 소리 프른 구름 향해 퍼지네.
妾身守空閨，	이 몸도 독수공방하고
良人行從軍。	내 님은 종군하러 가셨네.
自期三年歸，	삼 년이면 돌아온다 기약한 이래.
今已歷九春。	지금 벌써 아홉 해 봄이 지났네
飛鳥繞樹翔，	나는 새는 나무를 휘 돌아 날아가.
嗷嗷鳴索群。	슬피 울며 낭군을 애타게 찾는다.
願爲南流景，	남쪽으로 흐르는 빛이 되어.
馳光見我君 ⁵²⁾	빛을 내달려 내 낭군 보고파

“西北有織婦(서북쪽에 베 짜는 여자 있다)”는 고대의 시에서 자주 보이는 즉흥적인 수법이다. 그 뒤로는 “綺縞何繽紛(꽃무늬 비단 어찌나 화려한지)”라는 말이 따른다. 이는 매일 천을 짜는 여성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천은 모두 무늬가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아침부터 천을 짜고 있지만 저녁이 되어도 천은 무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가 심적으로 군에 나간 남편을 그리고 있어 천을 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曹植은 과장된 수법을 통해 이 여성이 밤낮으로 한숨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한숨 소리는 구름을 찢른다고 한다. 이로써 그녀의 비통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녀의 마음이 심란한 것은 멀리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이별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남편이 약속한 삼 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는다. 남편을 사모하던 여성은 자신이 햇빛으로 변해서 남편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낭만주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움에 쌓인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가설은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曹植은 이러한 예술적 구상을 통해 사모하는 그리움을 복제할 수 없는 위치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후세의 시인들에게도 많은 계시를 주었다.

그 밖에 曹植의 〈七哀詩〉와 〈閨情〉도 사부를 그린 시이다. 〈閨情〉이편에서 여성은 남편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마음속의 우려도 토로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 옛사랑을 버리고 있는데 님은 그러지 않을까? (人皆棄舊愛，

52) 趙幼文: 《曹植集校注》,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年

君豈若平生?)” 그녀는 남자들이 모두 낡은 것을 귀찮아하고 새로운 것을 즐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남편이 옛정을 잊지 않고 초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53)

(2) 버림받은 여성 (棄婦)

사부는 당연히 불쌍한 여성이다. 그러나 어쨌던 희망을 갖고 있으나 버림받은 여성의 경우야말로 비참하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曹丕은〈代劉勛出妻王氏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은 여성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翩翩床前帳,	침대 앞에 걸린 비뚤어진 휘장
張以蔽光輝。	휘장은 빛을 가리려 하네
昔將爾同去,	예전 너랑 같이 떠나
今將爾同歸。	오늘 너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네
緘藏篋笥里,	너를 장롱에 숨기고
當復何時披。 ⁵⁴⁾	언제 내가 다시 와서 열지 누가 알겠는가.

왕씨는 이름이 송이라 하는데 평유 장군 劉勛과 결혼한 지 이십년이 되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여 쫓겨나게 된다. 劉勛은 다른 산양 司馬氏는 아내로 맞이한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름으로 버림을 받지만 사실은 이미 남편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수년간 사랑을 나누었으나 마음을 잃게 되면서 처가 집으로 쫓겨나게 된다. 자식이 없어 의지할 곳도 없게 된다. 왕씨의 마음은 얼음물과 같이 차가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曹丕는 이 시를 창작함에 있어 함축된 필체로 섬세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창가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깊은 심려에 잠긴 버림받은 여성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그와 동시에 曹植의 〈棄婦篇〉에 역시 평유 장군 劉勛의 아내 王宋를 그리고 있다. 《옥대신용(玉台新咏)》의 기록에 의하면 “왕송은 평유장군의 첩이다. 입

53) 朱碧菲,〈論曹丕和曹植的女性觀〉, 中國石油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年4月.p.10

54)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p.18

문한 지 이십여 년이 되나 劉勰는 司馬氏 여성을 마음에 두면서 송씨가 출산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쫓겨나게 된다(王宋者，平虜將軍劉勰妻也。入門二十余年，后勰悅山陽司馬氏女，以宋无子出之)”。 曹丕와 曹植 그리고 王燦은 모두 〈出婦賦〉를 통해 이 일을 언급한 바 있다. 〈棄婦篇〉은 건안 십육 년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曹植의 초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대언체 이고 버림받은 여성의 인칭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國風〉의 형식과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棄婦篇〉에서 자식이 없어 버림받은 여성의 형상을 曹植은 정원에서 석류를 심는 행동에서 부터 묘사하고 있다. 여주인은 석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된다. 후대를 없어 무정하게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 여성은 출산을 한 여성은 저기 높이 걸려있는 달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식이 없는 여성은 저기 스쳐 지나가는 별뿔과도 같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잠을 설친다. “踟躕還入房，肅肅帷幕聲。塞帷更攝帶，撫弦彈鳴箏。慷慨有余音，要妙悲且清”와 같은 복잡한 심리 활동을 통해서야 눈물을 삼키고 탄식을 한다. 자식이 없음은 신령에 충성하지 못한 것이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계수나무는 서리가 내려서야 열매가 열리는데, 봄과 여름에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겠냐고 자문한다. 비통한 감정 속에 빠져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다.

(3) 과부 (寡婦)

건안 17년(기원212년) 曹丕의 친구 阮元瑜는 일찍 세상을 등지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된다. 홀로 된 과부의 비통한 심정을 대신하여 曹丕는 〈寡婦詩〉를 창작한다.

霜露紛兮交下，	가을 이슬이 내려왔고
木叶落兮淒淒。	나뭇잎은 떨어지고 처량하니
候雁叫兮云中，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가느라 허공에서 짖어대고
歸燕翻兮徘徊。	제비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妾心感兮惆悵,	쓸쓸한 가을 풍경은 내 마음도 허전하게 하는구나
白日急兮西頽。	태양도 그런 내 모습이 처량해 급히 서쪽으로 기우는구나
守長夜兮思君，	걱정에 잠긴 나는 목을 내밀어 저 멀리 바라보니
魂一夕兮九乖。	밤이 어둡고 달과 별이 나오니
悵延佇兮仰視，	아무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星月隨兮天回。	혼자서 긴 밤을 지내며 내 님을 그리워한다.
徒引領兮入房，	하룻저녁에 아홉 번씩 놀라 일어난다.
竊自怜兮孤栖。	끝내 자신을 다독인다.
願從君兮終沒，	그 사람과 함께 백년해로 하네
愁何可兮久懷。 ⁵⁵⁾	결정한 만큼 근심걱정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자구나

이 시에서 曹丕는 과부의 인칭으로 비통에 잠긴 여성형상을 그리고 있다. 동한 시기 부녀들은 이미 어떠한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모두 자립할 수 없었기에 남편을 잃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걱정하면서 또한 비통할 수밖에 없다. 전시는 처량한 늦가을의 경물을 묘사하면서 과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혼자서 깊은 밤에 잃은 부군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혼자서 슬퍼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의 말미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과부가 남편을 따라 죽겠다는 시구가 나온다. 언어의 생동함은 독자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를 통해 작가는 과부에 대한 동정심을 토로했다.

曹植은 같은 작품인 〈寡婦詩〉의 한 편에서는 오로지 두 구절을 남겼을 뿐이다. “高墳郁兮巍巍，松柏森兮成行” 여기에서 과부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앞의 두 문장을 통해 전체 시작품의 처량하고 암울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측면으로 과부의 애환을 그리고 있으며 曹植의 동정심을 엿볼 수 있다.

(4) 가인 (佳人)

〈추호행 (秋胡行)〉과 〈선재행 (善哉行)〉 이 두 편의 시는 曹丕가 가인을 묘사

55) 夏傳才、唐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2013年版.p.5

한 시이다. 〈秋胡行〉은 가인을 기다리면서 안절부절하는 심정을 그리고 있다. 〈善哉行〉은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가 아름다운 사물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秋胡行〉는 여성형상은 대체로 단순하다. 오로지 한 가인일 뿐이다. “朝与佳人期”、“佳人不在”、“佳人來”와 같은 시구를 통해 우리는 가인이 어떤 형상인지 잘 파악할 수 없고 오로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善哉行·有一美人〉의 여성의 경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曹丕의 여성 제재 시작품에서 비교적 여성의 묘사에 있어 섬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有美一人，婉如清揚。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가
妍姿巧笑，和媚心腸。	자태가 예쁘고 웃음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知音識曲，善爲樂方。	음악에 능하고 악보도 알아본다
哀弦微妙，清氣含芳。	처량한 악기 소리가 마치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풍긴다
流鄭激楚，度宮中商。	연주가 정가조음처럼 유창하고 우렁차고 연주기술이 높네
感心動耳，綺麗難忘。	아름다운 음악을 나는 잊을 수가 없느니
離鳥夕宿，在彼中洲。	고독한 새가 밤에 수중에 섬에 묵으니
延頸鼓翼，悲鳴相求。	목을 내밀어 날개를 움직이고 슬프게 울어서 동반을 찾네
眷然顧之，使我心愁。	절절하게 외로운 새가 보며 내 마음속에 우수 가득하니
嗟爾昔人，何以忘憂。 ⁵⁶⁾	예전의 사람이 어떻게 우수를 잊을 수 있는 것을 모르니?

이 작품에서 曹丕는 우선 여성의 외적인 미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자태가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리고 품격적으로도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의 형상에 부합된다. 즉 “화매신장(和媚心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성이 음악적인 재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녀가 연주한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曹植은 창작은 가인 작품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雜詩·其四〉는 가인이 시 속에 구속되지 않은 것을 찬양한 시가작품이다. 시 전체는 비유와 화려한 시구, 조화된 음률로 曹植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불리고 있다. 이 시에서 曹植은 아름답

56)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p.26

다운 가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를 세속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그녀 역시 자신의 젊음을 잃게 되는데 작가는 이러한 율분의 정서를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美人篇〉은 어떤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을 그리고 있다. 그녀는 이상적인 배필을 만나지 못해 시집을 가지 못했다. 역대의 사람들은 이는 曹植가 자신을 비유한 것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의 여성의 형상은 매우 선명하다. 그녀는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의지 또한 강인하다:

美女妖且閑,	미녀는 아름답고도 아정한데
采桑歧路間。	갈림 길 사이에서 땀을 따네
柔條紛冉冉,	부드러운 가지는 어지러이 흔들거리고
落葉何翩翩。	떨어지는 잎새는 어찌 저리도 훌쩍 나는가
攘袖見素手,	건은 소매에 하얀 손 드러나
皓腕約金環。	흰 팔엔 금팔찌를 끼었네
頭上金爵釵,	머리에는 금비녀 꽂고
腰佩翠琅玕。	허리에는 비취색 구슬을 차고 있네
明珠交玉體,	빛나는 구슬 옥 같은 몸에 두르니
珊瑚間木難。	그야말로 산호사이의 푸른 진주구나
羅衣何飄飄,	비단 옷은 바람에 나부끼고
輕裾隨風還。	가벼운 옷자락은 바람에 따라 살랑거리네.
顧盼遺光彩,	돌아보는 눈동자엔 광채가 감돌고
長嘯氣若蘭。	길게 내쉬는 숨결은 난초와도 같아서
行徒用息駕,	길손은 수레를 멈추고
休者以忘餐。	쉬는 자는 먹는 것조차 잊었네
借問女安居,	여인이 어디 사는가 물으니
乃在城南端。	바로 성 남단에 산다하네
青樓臨大路,	푸른 칠의 누각은 큰길에 닿아 있고
高門結重關。	높은 문 겹겹이 닫혀있네
容華耀朝日,	꽃과 같은 얼굴 아침 햇살에 빛나니
誰不希令顏	누군들 그 고운 얼굴 바라지 않으리요
媒氏何所營	중매쟁이는 무엇을 하였기에

玉帛不時安。	폐백의 청혼이 제 때에 안착하지 못했는가
佳人慕高義，	가인은 높은 절의를 사모하고
求賢良獨難。	어진 배필을 찾는데 유독 까다롭구나
衆人徒傲嗽，	못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만
安知彼所觀。	그녀의 살피는 살피는 바를 어찌 알리요
盛年處房室，	한창 나이에 집에만 눌러 있으니
中夜起長嘆。 ⁵⁷⁾	한밤중에 일어나 길게 탄식하네

이처럼 아름다운 여성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나이가 들어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의지가 강인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2) 시가에서 여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

(1). 여성에 대한 관심

曹丕와 曹植은 모두 적지 않은 여성 제재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여성형상을 부각했다. 동한 시기에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그들은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여성 생활과 감정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당시의 다른 문인들이 여성 제재 문학에 참여하는데 본보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건안의 여성 제재 작품의 흥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⁵⁸⁾

유교의 정통 여성관의 영향을 받아 동한 시기의 여성의 위치는 날로 비천해진다. 그들은 정치와 사회생활 및 가정에서 날로 심한 구속을 받게 된다. 특히 문학에서 선진시기 여성 문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날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시기에 여성 작가의 수는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도 매우 적었다. 이는 《시경》, 《초사》에서 개성이 뚜렷한 여성형상이 많았던 것과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말의 여성형상을 그린 작품은 매우 적

57) 趙幼文：《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p.93..

58) 朱碧菲：〈論曹丕和曹植的女性觀〉，中國石油大學，2016年.p.17

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안 시기에 와서 曹조과 曹植을 중심으로 하는 업하(鄴下) 문인집단은 또 다양한 여성 제재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曹조과 曹植은 그 중심에 있었다. 게다가 많은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창작의 과정에서 曹조과 曹植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각종 신분의 여성들은 각기 다른 불행을 겪게 됨을 인식하게 된다. 이들의 상황과 혼인 생활에서의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유추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여성 생활에 대한 관심은 당시 그들의 여성관을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에 대한 동정심

앞서 양자의 여성형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曹조과 曹植의 작품에서 여성형상의 부각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그들의 작품에서는 과부(寡婦), 사부(思婦), 버림받은 여성(棄婦)의 불행에 대해 曹조과 曹植은 모두 동정심을 표하고 있다. 曹조는 업하(鄴下) 문인의 선두로서 그는 문학창작의 소재 선택에 있어 굉장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 건안문학의 많은 작품은 모두 曹조가 명제를 설정하여 기타 문인들이 창작했다. 그 와중에는 과부에 대한 동정심을 표한 작품도 있다. 그는 자신이 〈寡婦詩〉를 창작하였다. 그리고 기타 문인들을 동원하여 창작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曹植과 함께 창작한 것으로는 〈寡婦詩〉가 있다. 그 밖에 〈寡婦賦〉도 있다.

과부라는 유형의 여성을 대함에 있어 曹조와 曹植은 모두 자신의 동정심을 표한 바 있다. 당시의 여성들은 모두 어려서는 부권 하에, 시집을 가서는 남편 아래,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하는 "삼종(三從)" 지덕을 지켜야 했다. 이는 한 인간의 선택권을 침탈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여성들은 가정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여성들은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남편을 잃은 여성의 경우 산림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마냥 독립하기 힘들다. 평민 가정의 경우 남편을 잃게 되면 자신이 입신할 수 있는 기본을 잃게 된다. 부유한 가정의 경우 물질적으로는 그나마 부족함이 없을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개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양한 시기에 적지 않은 여성들이 개가를 한 바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여성들의 지위가 비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가는 격려를 받는 일은 아니었다. 진시황 시기의 중국 봉건 통치자들은 모두 여성이 혼자가 될 지언정 정절을 지킬 것을 원했다. 봉건 통치의 후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정절을 지키는 여성들에게 정절을 세워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절을 지키는 여성의 가정에 대해서는 감세 등의 정책을 펼쳤다. 우리는 曹조과 曹植의 시작품에서 과부가 개가해서 인생을 행복을 얻는다는 그러한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특히 阮元瑜는 曹조의 친구로서 신분이 있는 문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여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여 여성의 개가는 쉽게 허용될 리 만무하다. 일부다처의 봉건사회에서 남성은 여러 명의 첩을 가질 권력을 갖고 있으나 여성은 오로지 한 명의 남편과 결혼해야 했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혼자서 남은 인생을 지내야 했었다. 이러한 홀로 된 과부들의 운명이 曹조와 曹植의 동정심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4.2 二曹의 擬婦詩에 대한 상이점

1) 시가에서 여성의 운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과부와 사부의 인생은 대체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버림받은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버림받은 여성은 인위적으로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정이 있는 여성에서 홀로 남아 의지할 곳을 잃는다. 그런 차원에서 버림받은 여성은 보다 불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曹조와 曹植은 모두 버림받은 여성에 대해 동정하고 있다. 그러나 曹植은 이러한 여성의 비참한 운명은 불평등한 혼인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曹조의 경우 이러한 지적을 한 바 없다. 애초에 《시경》에서 버림받은 여성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것으로는 〈衛風·氓〉이 있는데, 작가는 시를 통해 한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버림받은 여성형상을 그리고 있다. 이 여

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성이 혼인에서의 상대적 피동적인 지위를 엿볼 수 있다.

한대에 와서 남존여비의 사상이 진일보 발전하게 된다. 여성을 포기하는 데에는 보다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된다. 이는 남성들이 도덕적으로 질책을 받지 않을 근거가 되기도 한다. 《大戴禮記》에서는 여성의 “칠거(七去)”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婦人七去：不順父母，爲其逆德也；无子，爲其絕世也；淫，爲其亂族也；妒，爲其亂家也；有惡疾，爲其不可與共粢盛也；口多言，爲其離親也；竊盜，爲其反義也。⁵⁹⁾

여기에서 말하는 “칠거(七去)”는 사실 후세의 “칠출(七出)”제도를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즉 한 여성이 시집을 간 후 시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아들이 없으며, 음란하고 부도를 지키지 않고, 병이 많거나, 말이 많거나, 혹은 도둑질을 하는 등 일곱 가지 중의 한 가지에 해당되면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볼 때, 이는 모두 여성에게 있어 불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칠출 제도는 남상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에게 많은 요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남성에게 대해서는 상응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권력과 의무의 상대적 불평등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칠출” 제도는 혼인 관계에서 불평등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남성들은 구속을 받지 않고 도덕적 여론의 압력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릴 수 있게 된다.⁶⁰⁾

曹丕와 曹植가 묘사한 버림받은 여성은 바로 자식이 없어서 이혼을 당한 사례이다. 二曹은 여성관에 있어 미세한 차이를 보여 있다. 曹丕는 비록 버림받은 여성을 동정하고 있지만 그는 이러한 버림이 불평등한 제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이는 여성들이 반드시 견뎌야 할 것이며 남성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지만 여성은 한 명만의 남편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하

59) 《大戴禮記》(부인칠거: 시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효도를 위반한다. 자식이 없으면 남편의 지손 후대가 끊긴다. 음란하면 남편 가족의 혈통 관계를 혼란이 시킨다. 질투하면 집에 문제를 일으킨다. 병이 많으면 남편과 같이 종묘행사를 하지 못 한다. 말이 많으면 친척사이에 감정을 이간시킨다. 도둑질을 하면 예법을 맞지 않는다.)

60) 朱碧菲 〈論曹丕和曹植的女性觀〉, 中國石油大學, 2016.04.01., p.22

였다. 고대인들은 불효한 세 가지 행위 중에 자식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불효라고 하였다⁶¹⁾. 그래서 여성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로 버림을 받는 것은 응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운명이기에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曹丕와 달리 曹植의 경우 동정을 표하면서도 이는 불평등한 혼인제도로 인해 여성들이 비참한 운명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曹植은 “아들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걸린 달과도 같이 환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저기 별똥처럼 쫓겨야만 한다(有子月經天, 无子若流星)”라고 하였는데 즉 자식이 있고 없음은 여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여성을 생육의 공구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曹植도 남성이고 통치계급이어서 윤리강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⁶²⁾

二曹의 작품에서 유사란 여성의 형상은 사부, 버림받은 여성, 과부, 가인 네 종류로 나뉘지만 세분하면 각기 차이점을 보여 있다. 曹丕는 간략하고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 않는 반면, 曹植의 경우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면 감정표현에 있어 적극적이다. 曹丕과 曹植의 여성관의 차이점을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즉 여성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 볼 수 있다.

2) 여성의 개인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

曹丕와 曹植의 작품에서 유사란 여성의 형상은 사부, 버림받은 여성, 과부, 가인 네 종류로 나뉘지만 세분하면 각기 차이점을 보여 있다.⁶³⁾ 曹丕는 간략하고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 않는 반면, 曹植의 경우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면 감정표현에 있어 적극적이다. 曹丕과 曹植의 여성관의 차이점을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즉 여성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 볼 수 있다. 二曹은 모두 가인(佳人) 시를 창작하였다. 가인(佳人) 시의 전통은 《시경》, 《초사》 이래부터 있었다. 曹丕에 의하면 여성의 가치는 가정 속에서만 실

61) 朱碧菲 〈論曹丕和曹植的女性觀〉, 中國石油大學, 2016.04.01. p.22

62) 張競悻 : 〈女性題材創作比較論〉, 南陽師範學院學報, 第十一卷第1期

63) 朱碧菲 〈論曹丕和曹植的女性觀〉, 中國石油大學, 2016.04.01. p.23

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한 남성에게 부속되었을 때 그의 감정은 사람들에게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曹조가 묘사한 음악에 능통한 가인은 음율에 능하고 재능이 특출하나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남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와 동시에 이는 시부모님을 섬기는 일종의 기능으로 보았다. 그러나 曹조의 경우 여성의 묘사에 대해서 매우 간략했다. 종종 한 구절로 가인을 묘사했다. 이는 曹조의 내성적인 풍격과 관련이 있으며 그의 여성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曹植은 이와 다르다. 그는 화려한 문장을 통해 가인의 외모를 묘사한다. 그리고 여성의 내적인 덕성과 외적인 재능을 높이 긍정하고 있다. 여성의 용모에 대해 찬양하는 것은 《시경》에서부터 있었다. 屈原의 작품에는 이러한 미인을 묘사하는 문장이 많다. 《시경》에서 여성을 묘사하는 엄청 많은데, 개편에서 “窈窕淑女，君子好逑”(《周南·關雎》)와 같은 것은 바로 여성이 남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초사》에서 굴원은 많은 향초미인을 그렸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서슴없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 〈離騷〉에서의 여러 명의 미인과 〈惜往日〉에서의 “妒佳冶之芬芳兮，嫫母姣而自好。雖有西施之美容兮，讒妒入以自代”와 같은 문장들도 모두 가인을 묘사한 구절이다.

曹植은 《시경》과 《초사》에서 묘사한 여성의 외적인 미모에 대한 경험을 받아들여 여성의 자태와 옷차림에 대해 극히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반드시 주목해야 하며 찬미해야 하는 일이다. 그와 동시에 여성의 품덕과 재능도 칭송해야 한다고 한다. 그의 〈美人篇〉에서 미녀는 외형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매우 어질었다. 자태 또한 우아했다. 그밖에 曹植은 그의 옷 차임을 통해 그녀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다. “ 걷은 소매에 한얀 손 드러나. 흰 팔엔 금팔찌를 끼었네. 머리에는 금비녀 꽂고 허리에는 비취색 구슬을 차고 있네. 빛나는 구슬 옥 같은 몸에 두르니. 그야말로 산호사이의 푸른 진주구나. 비단 옷은 바람에 나부끼고 가벼운 옷자락은 바람에 따라 살랑거리네 (攘袖見素手，皓腕約金環。頭上金爵釵，腰佩翠琅玕。明珠交玉体，珊瑚間木難。羅衣何飄搖，輕裾隨風還。顧盼遺光彩，長嘯氣若蘭。” 이러한 문장을 통해 금과 옥으로 된 물품이야말로 미인에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다. 曹植이 그린 미인들은 남성에게 의해 가려진 그림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성을 지닌 완전체이다. 그의

출중한 외모와 자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그들은 또한 품격에 있어서도 고상하고 재능도 뛰어난 여성들이었다. 예를 들면 女媧、禹妻、班婕妤 등이 있다. 曹植은 이러한 여성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제5장 결론

曹丕와 曹植은 모두 건안 연간 문단을 지배하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문학적 성취에 있어서는 각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특수한 관계로 말미암아 曹丕과 曹植의 비교연구는 삼조(三曹)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선진시기 양한의 영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周易》와 《礼記》의 남양여음(男陽女陰), 남존여비 등을 통해서 이해한다. 그러나 선진 초기의 시기에 이러한 부권 중심의 체계는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이다. 여성이 혼인 생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사회와 정치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 이후, 족권이 부권으로 이전하면서 여성들은 각기 다양한 구속을 받게 된다. 양한 시기 유가 사상의 주도하에 여성관은 보다 보수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董仲舒를 대표로 하는 문인들은 여성들에게 엄격한 규정을 한다. 여성들은 남성에 종속하게 된다. 남여를 불문하고, 부녀, 부부나 모자의 관계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모두 매우 낮았다. 또한 남성들에게 삼종사덕을 지켜야만 했었다. 그와 동시에 남성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천도와 음양의 차원에서 남존여비의 관념을 신격화하였던 것이다.

춘추 이래 여성들은 각종 차별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은 상대적으로 매우 발전했다고 본다. 《시경》와 《초사》를 대표로 하는 문학에서도 여성을 제재로 하는 작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董仲舒는 유학을 통해 천하를 통일한 후 여성들의 지위는 날로 비천하게 된다. 특히 양한의 시대에 여성과 관련한 문학은 매우 적다. 여성 작가는 적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도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은 동한 말년의 《고시십구수》에 와서야 호전된다. 《고시십구수》에서 반수에 가까운 시가는 여성 제재로 시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을 상대로 한 작품은 여전히 남성 작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건안 시대에 와서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유

가의 도덕적 체계가 조금씩 충격을 받게 된다. 문인들은 다시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게 되고 인생의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 여성의 존재적 가치는 이러한 환경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曹丕와 曹植은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굉장히 진보된 사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대량의 여성 제재 작품을 창작한 바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것이 있는가 하면 각종 이유로 남편과 갈라져서 그리움을 그리는 여성도 있다. 또한 출산할 수 없는 이유로 버림을 받은 여성을 그린 작품도 있다. 이들은 《시경》과 《초사》의 전통을 따랐으며 대량의 가인 형상을 묘사했다. 曹丕와 曹植은 모두 작품을 통해 비극적 운명에 처한 여성에 대해 동정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시작품을 통해 여성은 단순히 남성들의 부속품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개체이며 자신들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남권 중심의 사회와 전란의 시대에 그들의 운명은 남성들보다 기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양한 시기에 비해 많은 진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횡적으로 비교할 때, 曹植은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曹丕 보다 진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曹丕는 불행한 여성을 동정하는 시편들이 있으나 그는 이러한 여성들의 불행이 봉건사회의 모순된 사회적 구조가 그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묘사하지 못했다. 유가 사상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봉건 통치자로서 그는 오히려 남존여비의 관념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정치가 혼란한 이유를 여성에게 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성은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 역시 온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 임씨를 버렸다. 심지어 자신과 관계가 좋았던 甄宓를 죽이기도 하였다. 문인의 다정과 제왕의 잔혹함은 曹丕에게서 제일 잘 재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曹植은 여성을 동정하지만 그는 여성의 불행이 불공정한 사회제도에 있음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여성들의 아름다운 용모를 찬양하고 여성들의 재능과 고상한 품격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여성이 남성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曹植 역시 작품을 통해 불공정한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남성에게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지 않

았다. 그러나 그의 개성은 구속이 없고 도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曹丕보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훨씬 진보했다고 볼 수 있겠다.

曹丕와 曹植의 문학작품에서 각기 자신들의 여성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曹丕와 曹植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문학창작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대체로 두 가지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그들의 창작 소재에 준 영향이다. 曹丕와 曹植은 여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여성들의 존재를 정시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 제재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들의 작품에서 불행한 여성에 대해 동정하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그들의 작품의 여성형상에 영향을 주었다. 曹丕의 시에서 형상된 여성은 모호한 가인 외에 대체로 비참한 운명의 여성들을 그렸다. 그리고 일부 질투하는 여성을 그리기도 하였다. 반면에 曹植의 시가에서 묘사된 여성은 불쌍한 여성 외에, 용모가 뛰어나거나 자태가 우월한 가인도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曹植은 여러 번 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여성을 자신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가 《초사》의 예술적 수법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여성의 용모와 품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鐘 嶸撰，曹旭集注，詩品集注【M】，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4:97-98
- 陳 壽撰，《三國志》，北京：中華書局，2005
- 沈德潛：《古詩源》卷五，北京：中華書局，1963年版，第107頁
- 夏傳才、庸紹忠：《曹丕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 2014年版，
- 趙幼文撰：《曹植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4年，
- 黃 節，《曹子建詩注》，中華書局2008年，北京第1版，第10頁
- 顧炎武：《日知錄》卷十八《改書》，引自魏宏燦《曹玉集校注》，合肥：安徽大出版社，2009年版第9頁
- 魯 迅：《魯迅全集》，人民文學出版社1981年版，
- 張可禮：《三曹年譜》，濟南：齊魯書社，1993年版
- 歐陽竹：〈論前代文學對曹植女性題材作品的影響〉大眾文藝，2009年第2期
- 聂文郁：〈曹子建弃婦詩辨析〉，青海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學科）1984年02期
- 李靜、周曉琳：〈魏晉南北朝詩作中擬婦詩論〉，云南社會主義學院學報，2012年第3期
- 李曙光：〈曹植詩歌研究〉，陝西師範大學，2007年5月. p:8~27
- 孫明君：〈建國以來曹植研究綜述〉，許昌師專學報（社會科學報），1996年，第41第3卷
- 韋運韜：〈魏文帝曹丕研究〉，陝西師範大學，2013年5月
- 虞德懋：〈曹植詩歌藝術影響摭論〉，揚州師院學報，1989年第5期
- 王鵬云〈曹植前后期弃婦詩賦比較研究〉，文學教育（上），2016年4月（期刊）
- 朱碧菲 〈論曹丕和曹植的女性觀〉，中國石油大學，2016.04.01.
- 錢志熙：〈魏晉詩歌藝術原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3年版，第166頁
- 張 晶：〈論曹植詩歌的抒情性〉，遼寧師大學報，1993年第5期
- 裴登峰：〈曹植詩歌的陰柔之美〉西北師院學報，1991年第1期
- 裴登峰：〈曹植詩歌的陽剛之美〉，西北師院學報，1992年第2期

- 裴登峰：〈曹植詩歌意境美探析〉西北師範大學學報，1993年第4期
- 裴登峰、張音：〈曹植作品中女性美的象征意義〉，青海民族學院學報，1994年第4期
- 張蕾：〈婦女題材詩作鑒賞異說〉河北師範大學學報，1992年第2期
- 張競悻：〈曹丕、曹植女性題材創作比較論〉南陽師範學院學報，2012年第11卷第1期
- 湯立偉：〈曹植女性題材作品前后期之比較〉湘潭師範學院學報，1998年第2期
- 黃季耕：〈曹植賦略論〉，安徽教育書院學報，1994年，第3期

中文摘要

歷代文學史家稱魏晉時期的文學為“文學的自覺時代”，這是一個從萌芽新變到繁榮發展的階段，也是一個文學創作趨于個性化、作家獨特的風格與人格得到充分展現的階段。這一時期建安文學為這個多姿多彩的文學階段開啓了絢爛的篇章，並深刻地影響魏晉時期乃至於後世的文化發展，一般提到建安文學，我們首先想到的是建安文學的倡導者“三曹”即曹操、曹丕、曹植。他們的文學成就對建安文學的繁榮和中國的文化發展，都有着舉足輕重的影響。因此，歷代文學研究者都很重視對三曹的研究，三曹比較研究也是建安文學研究的重要課題。

曹丕和曹植生在同一時代、同一家庭，有同一父母，但因才情稟賦的差異、人生遭遇的不同在文學上的成就也各有不同，以往的學者主要是對曹植以及曹植的詩賦進行研究，而且對曹植的詩賦有着很高地評價和認可，反而對曹丕以及曹丕的詩歌研究相對而言就少很多，而且因為很多政治上的原因很多學者對曹丕的評價沒有曹植的高。自《詩經》和《楚辭》以來，以女性為題材的作品在文學中就占據着不可或缺的地位。無論是《關雎》中的窈窕淑女，《氓》里失婚但堅強的婦女，還是《天問》、《九歌》中的娥皇女英與湘夫人，都因其窈窕多姿的外貌或堅貞的品格讓人印象深刻。但是到了兩漢以後，董仲舒獨尊儒術，整個社會的女性觀在儒家思想地影響下日趨保守，對女性的約束越來越多，女性的生存空間被極力壓縮。於是這一時期女性題材的作品也越來越少，直到東漢末年才有所改變。《古詩十九首》中有半數以上的詩歌與女性相關，隨後，以曹丕和曹植為代表的邨下文人集團也創作了為數不少的女性題材作品。筆者在文章中主要是對曹丕和曹植的生平經歷以及因經歷的不同二曹所做的詩歌有所不同，主要是針對擬婦詩進行分析，從而得出二曹在擬婦詩詩歌中的女性形象和對女性認識的異同，研究二曹擬婦詩歌中對女性的認識，從而到達對二曹的擬婦詩更進一步的研究了解。

關鍵詞：曹丕、曹植、女性形象、擬婦詩，女性認識